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9일)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올 가을, 전국은 '선명상'으로 물든다

9월 27~30일, 전국서 선명상 축제
호국연무사·쿠무다·범어사 등
전국 11개 사찰, 기관서 특강 열려
지역주민·계층별 맞춤 프로그램들
"선명상 홍포, 간화선 대중화 첩경"
40개 사찰서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교종본찰 봉선사 성보' 만나보세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2024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대중 공개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내빈이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있다. 글 · 사진= 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9면〉

9월 말, 전국이 명상으로 물든다. 국민들의 마음평안을 발원하고 한국불교 수행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선명상 향연이 펼쳐진다.

9월 27~30일 진행되는 '전국 선명상 축제'는 전국 11개 사찰과 기관에서 만날 수 있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에게 선명상을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에서는 해외 명상 지도자 초청 특강을 비롯해 사찰과 기관의 특성이 맞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대전 **보문고**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명상가 차드 멩 탄이 '뇌를 깨우는 15초의 기적! 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강을 펼친다. **중앙승가대**에서는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툽텐진파 박사 초청 특강이 열린다. 'Mind life로 확인하는 명상의 힘'을 수행과 포교 관점에서 푸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군종특별교구 **호국연무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군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순간, 행복한 삶! 명상 콘서트'를 연다. 곽정은 작가의 강연과 상담에 이어 뉴진 스님의 디제잉이 펼쳐진다. 서울 **홍대선원**은 9월 29~30일 양일간 'Just be! 홍대선원 선명상 WEEK'를 진행하고 선태극권, 드로잉, 싱잉볼 명상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부산 **쿠무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송정해수욕장에서 선명상축제 부산전야제를 실시한다. 108배 경진대회 등 풍성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선명상 축제는 사찰에서도 이어진다. 서울 **조계사**는 9월 29일 오전 11시 행복한 수행자로 불리는 직메 린포체 초청 특별 법회를 실시한다. '진정한 깨달음의 기준! 자비와 지혜'를 주제로 강연과 실참이 60분간 이어진다. 서울 **봉은사**는 9월 29일 오후 3시부터 '봉은사 선명상 축제'를 해외·국내 연사 강연을 진행한다. 툽텐진파와 금강 스님이 강연과 실참을 지도하며 AI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 **서고사**는 서고사세계평화명상센터 개관을 기념하며 9월 29일 오후 2시 차드멩탄을 초청, 강연과 실참을 진행한다. 명상 수행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하며 첼리스트 정호 스님 등이 연주하는 클래식 명상 음악 공연은 덤이다. 1박 2일 템플스테이와 연계, 30일까지 이어진다.

평창 **월정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 지도자 팝루 스님와 함께하는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修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사례 중심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실시된다. 오대산 선재길을 걸으며 걷기 명상, 생생야행, 선요가 명상 등이 진행된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로시 로장 할리팩스 초청 강연이 이어진다. '죽음명상! 죽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싱잉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1100팀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마음챙김축제'를 연다. 반려견을 위한 염주목걸이 만들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걷기명상, 반려견 전문가 초청 강연과 식물성 간식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선명상 홍포는 간화선 대중화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축제는 몸과 마음이 힘든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 간화선 이해와 관심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선명상 프로그램은 축제를 위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선명상 축제는 템플스테이에서도 이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부터 전국 40여 사찰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한다.

선명상 템플스테이는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각 사찰별 특화 명상법도 만나볼 수 있다.

문수암의 '바보(바라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선명상을 배울 수 있다. 선명상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설명은 물론 걷기, 좌선, 장호흡 등 실참도 준비됐다.

집중수행 프로그램으로는 **축서사**의 '쉬고 쉬고 또 쉬고(참선 집중수행)'이 있다. 6박 7일간 입승스님 지도로 하루 10시간씩 정진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마련됐다. **불갑사, 자비선사, 동화사** 등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들을 위한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 템플스테이를 연다. 인도 출신 주지스님이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선명상을 직접 지도한다.

선명상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파주 용암사 직접 관리한다

용암사 · 파주시, 9월 5일
관리단체 위탁 협약 체결
상시 보호 · 안전관리 담당

국가 보물로 지정된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관리 주체가 파주 용암사로 위탁됐다. 국유문화유산에 대한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해지면서 보존·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파주 용암사(주지 혜공 스님)와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9월 5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용암사 주지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공승관 조계종 문화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마애이불입상의 관리 주체는 기존 파주시에서 용암사로 이관됐다. 용암사는 마애이불입상의 원형보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높이 약 17.4m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석불 중 하나다. 천연 암벽을 활용해 선각하고, 그 위에 불두(佛頭)를 별도로 얹어 조성한 거대 불교 조각이다. 1963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지정 이후 파주시가 관리단체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용암사는 고려 때 창건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불자들의 노력으로 크게 중창해 경기 북부의 대표적 전통사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용암사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보물 지정 이전부터 해당 성보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며 전통사찰의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관리단체 위탁 협약은 그간 성보이자 문화유산으로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을 꾸준히 돌보고 지켜온 용암사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받고, 행정적 관리 주체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강토를 굽어보며 자애로운 미소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킨 파주의 자랑"이라며 "용암사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정성다해 돌보고 책임진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용암사 주지 혜공 스님은 위탁 협약이 또 다른 의미의 '환지본처(還至本處)'라고 평가했다. 혜공 스님은 "'환지본처'는 도난당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뜻은 물론 성보에 대한 권한과 무형의 자산이 본래 자리를 되찾는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협약을 통해 용암사는 관리 주체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통사찰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국내 문화유산의 관리 권한은 대부분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서 사찰로 관리 주체를 위탁하는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오랜만이다"라고 감사를 전한 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찰이 진정한 관리 권한을 갖는 주체로 환지본처가 이뤄지길 바라고, 조계종 문화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는 9월 5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dongguk UNIVERSITY 영캠프

Dongguk University
Young Camp - Festival with Buddhism

YOUNG CAMP

주인공

일시 · 장소

2024.09.24.(화) 17:00 – 21:00, 장충체육관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헌승 정각회장 취임…“선명상 보급 앞장”

9월 2일 취임법회 … 역대 최다 55명 가입
진우 스님 “국민 평안이란 목표 잊지 말길”
“부처님 가르침 대로 국민 국가 위해 봉사”



제22대 국회정각회가 개원 및 이헌승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입법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2대 국회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이헌승 회장이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각회는 9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2대 국회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입법가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선명상 실천을 약속하기도 한 이헌승 회장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시심마’ 즉 ‘이뭐꼬’라고 쓰여진 액자를 걸어 놓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생각을 전환하고 짧게나마 명상을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선명상이야 말로 ‘이뭐꼬’를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나와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뭐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이 하나라는 인식이 생겨 욕심, 화냄, 어리석음의 탐진치 대신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관용이 싹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 역시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하고 “편안함과 물질적 욕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상을 강조한 스님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이념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가진 목표는 국민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정각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에서 축사도 이어졌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국내외 정세가 격변하는 시기인만큼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솔선수범해 갈등과 반목 대신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앞장서 주길 기원한다”면서 “22대 국회 정각회가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정치를 통해 인간이 존중받는 위민국가 건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국회정각회에게 평화와 화합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며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각회장을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불교를 넘어 국민과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 회장의 신심과 열정이 모든 의원들에게 귀감이 돼 국회정각회가 앞으로도 더 큰 기여를 할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은 55명 가입으로 최다 회원을 기록한 22대 정각회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당 지도부가 정한 사안에 대해 정각회가 끌려갈 게 아니라 정각회가 정하면 양당 지도부가 따라올 수 있게 하고, 불교 정책 또한 정부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각회가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각회원들은 전진숙 정각회 간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불자 국회의원들은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불교의 외부 입법 수호자가 되겠다”면서 “사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인 정진을 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화합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발원했다.

“불교도대법회 원만개최 기원합니다”

통도사·표충사·전국비구니회 등
불교계 마음모아 기금전달 잇달아



서울 도선사(사진 왼쪽)와 속초 신흥사(사진 오른쪽)가 ‘2024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하며 성금을 기탁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9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기금 2천만원을 전달하며 종단의 역사적인 불사에 참여했다.

9월 3일에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와 서울 호국지장사(주지 도호 스님)도 기금 각 1억원과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 개최를 기원하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도선사 대중뿐만 아니라 청담학교와 복지법인 혜명 임직원들의 동참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와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는 9월 4일 각각 1억원의 성금을 희사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2024 불교도대법회에 참석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번 불교도대법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신뢰를 심고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에 만당 스님

진우 스님, 9월 4일 임명장 수여
만당 스님 “개편 이루도록 노력”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 10일 개원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만당 스님을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당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하며 “중앙종회 종단 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다뤄 결론 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종회의원들에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만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임은호 기자

선명상 영상으로 마음 돌보세요

미래본부 ‘내 마음 봄’ 영상 공개
주호영·이현세 등 95명 명상방법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을 앞두고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내 마음 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 콘텐츠 ‘내 마음 봄’은 MZ세대 대학생부터 주호영 국회의원, 이현세 만화가, 이창재 영화감독, 임형남 건축가 등 다양한 연령층과 전문 직업군의 사람들 총 95명이 참여했다. 선명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명상 장소와 명상법 등을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선명상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이는 3분 내외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쇼츠)로도 편집돼 매일 2~3편 공개될 예정이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명상 관련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원각 대종사 “방장·주지 동반 사퇴하자”

8월 31일 발표 입장문서 밝혀
“화합 분위기서 산중총회 진행”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가 자신과 주지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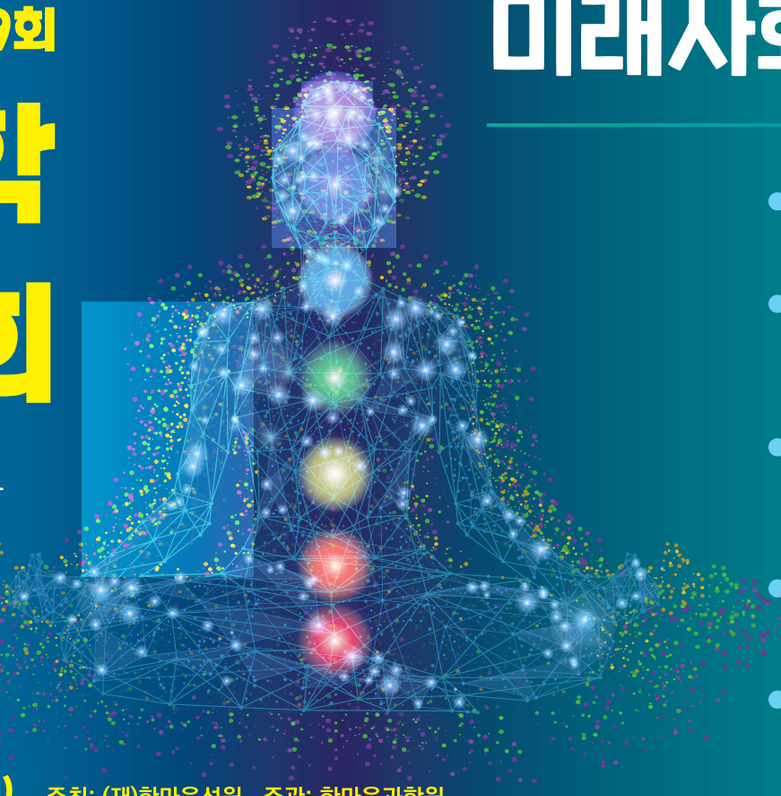
원각 대종사는 8월 31일 발표한 ‘해인총림의 안정과 여법한 산중총회를 위한 입장’에서 “최고의 수행 도량인 해인총림이 내분에 휩싸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은 본 산승의 허물이자 부덕함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참회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지금 방장으로서 책임은 해인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있음”을 밝힌 원각 대종사는 “본인과 본인이 추천한 주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에 사퇴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산중총회에 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그리하여 화합의 분위기에서 산중총회를 진행하고 새로운 방장스님이 주지를 추천해서 여법하고 안정적인 사중 소임을 구성해달라”고 독려했다.

원각 대종사는 총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원각 대종사는 “본 산승과 주지가 사퇴하면 종헌과 종법에 의거하여 총림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과도기의 집행부를 잘 구성하게 도와서 산중총회를 원만히 치르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2024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

독일 종교학자 만프레드 후터 교수의 기조강연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 기조강연: 대행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만프레트 후터(본 대학교 교수, 독일)

●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한마음선원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
발표: 유정오(이반성초등학교 교사), 진복선(한마음과학원 회원), 허기준(전남대학교 교수)

●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 ‘지혜로운 마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명희(경북대학교 강사)

● 대행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발표: 이광숙(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미래교육원 책임교수)

●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
발표: 박소진(신한대학교 교수)

● 마음챙김과 대행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 발표: 글렌 최(세네카 폴리테크닉 교수, 캐나다)

10.5(토) 10시~17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우리 모두를 위해’

국행수륙재 재건 626주년 맞이해
9월 1일 입재식…혜국 스님 법사
49일간 매주 대덕스님 법문 이어져
10월 19일 종정 성파 대종사 법문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9월 1일 경내 함월당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국행수륙재 입재를 봉행하며 10월 19일까지 4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사진〉 매주 일요일 대덕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10월 19일 봉행될 회향식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백년을 잘 사는 법문’을 주제로 법문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를 주제로 한 이번 수륙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비롯해 이제 막 탄생한 생명과 떠난 조상, 청년과 노년, 자녀와 부모 등 세대간의 화합과 평등, 행복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입재식은 도량결계, 대령, 관욕, 혜국 스님 법문, 육법공양, 상단의식, 시식, 법화경 약찬게 등 전통불교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어산으로 직접 집전했으며 진관사수륙재학교 소속 스님들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까지 한마음이 돼 수륙재를 진행했다.

신중작법에 이어 법사로 나선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나라의 별이 된 이들을 위한 갑진년 축원기도로 법문했다.

진관사는 이날 입재를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함월당에서 진관사 수륙재 재건 626주년을 기념하며 대덕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이어간다.

초재인 9월 8일에는 범어사 화엄경연구원장 용학 스님이 ‘우리 모두 힘내자’를 주제로 법문한다. 이어 △이재 9월 15일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의 ‘아기와 어린이를 위한 행복세상’ △삼재 9월 22일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의 ‘청소년을 위한 정말 팔팔한 덕담’ △사재 9월 29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 잘되는 덕담’ △오재 10월 6일 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엄마와 아빠세대를 위한 신묘한 덕담’ △육재 10월 13일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노년을 위한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진다. 회향식이 봉행되는 10월 19일 토요일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상에 올라 ‘백년을 잘 사는 법문’을 주제로 법문한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수륙재는 상생과 평화, 나눔과 배품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진관사 수륙재를 통해 모든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공덕을 얻어 평안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오늘은 내가 불교 교리왕!”

조계종 포교원 · 은정재단, 8월 31일
동국대 일대에서 나란다축제 개최

‘범종을 울려라’ 218명 참가 인기↑
상월정신 계승 안거체험도 눈길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도전! 범종을 울려라~!” 본선에는 218명이 진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여름의 끝을 알리는 8월 마지막 주말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함성소리로 가득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나란다축제’가 8월 31일 동국대 일원에서 열린 것. 그중 백미라 할 수 있는 불교 골든벨,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팔정도 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치열했던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218명의 어린이는 부모님, 소속 사찰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문제를 풀었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묻는 다소 쉬운 질문부터 육바라밀 중 계를 받아 지키는 ‘지계바라밀’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어졌다.

듣자마자 자신 있게 정답을 쓰는 아이가 있는 반면 간신히 답을 적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까지, 문제를 푸는 모습 역시 제각각.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만다라’를 묻는 질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탈락, 총 9명의 어린이가 결승에 진출했다.

범종을 울릴 어린이를 찾기 위해 사회자는 추가로 10문제를 출제하고 점수를 매겼다. “불교기 색깔 중 부서지지 않는 ‘금강’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신 구조물을 뭐라고 할까요?” 등 ‘자비’ 없는 문제들이 쏟아졌다.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대상의 영예는 구룡사 어린이법회 소속 이우빈 군이 안았다.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우빈 군은 “작년에는 입상에 그쳐 아쉬웠는데, 이번에 대상을 타게 되어 행복하다”며 “나란다 축제를 준비하며 얻은 불교 지식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나란다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운영하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불교립톡’ ‘반짝반짝 염주 만들기’ 등 학생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한편 ‘상월선원 안거체험’이 지난해에 이어 8월 30일 정각원에서 진행됐다. 영석고 11명 동대부고 8명 총 19명의 고등학생들은 정각원 뒤편에 마련된 야외 천막에서 수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봤다. 또 특별 다큐 ‘서릿달 동안거’를 시청하며 상월결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6회 나란다 축제는 이외에도 △불교교리경시대회 △상월결사 순례체험 △K-댄스 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 △어울림마당 △진학·진로 엑스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0·27법난피해자모임, 남북평화 기원 역사순례

3박 4일간 중국 백두산 일대 탐방
10 · 27법난 세미나 10월10일 개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벌어진 10·27법난의 피해자들이 백두산을 방문해 남북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10·27법난피해자모임(회장 원행 스님)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 4일간 ‘제44주년 10·27법난 역사순례’를 위해 중국 백두산 일대를 방문했다.〈사진〉 이번 순례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평화·국태민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순례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장 원행 스님과 더불어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순례단은 백두산 일대에서 남북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린 뒤, 중국 화엄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10·27법난피해자모임의 임원 선출식도 가졌다. 피해자 모임 수석부회장은 중하 스님이, 차석부회장은 한영수 씨가 소임을 맡았다. 감사로는 혜운 스님과 이근우 씨가 선출됐다.

한편, 10·27피해자모임은 ‘10·27법난 피해자 개인보상’을 주제로 오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연다.

김가령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서쌍교·서진영 추천

대한불교진흥원 8월 30일 발표
BBS노조 “깜깜이 공모” 비판도



서쌍교



서진영

BBS불교방송 후보로 서쌍교 SBS 보도본부 부국장과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이 추천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는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응모자 중 서류심사 선정 대상자의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로 서쌍교·서진영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쌍교 후보자는 BBS보도국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SBS보도본부 기자, 네트워크 팀장, 사회부장, 중국특파원, 경기북부(의정부)지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불련총동문회 이사,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 연변과기대 연구원, 베이징 중앙민족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SBS보도본부 부국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봉원(逢源).

서진영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우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및 재허가 심사위원, KBS-1라디오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자 등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 삼성그룹, 우리홈쇼핑, BBQ 그룹 등 국내외 기업 전략 및 인사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자의누리 경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법명은 일심(一心).

하지만, 이번 추천에 대해 불교방송 내부에서는 ‘깜깜이 공모’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언론노조 BBS지부(지부장 황민호, 이하 불교방송노동조합)는 진흥원의 사장 후보 추천에 반발하며 8월 29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황민호 지부장은 “진흥원은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철저히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누가, 몇 명이 면접을 봤는지 등 일반적인 사항조차 BBS 측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방송노조는 “타 언론사 출신이 아니며 경영 능력을 갖춘 사장을 원하는 BBS 직원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준한 스님 "홍대선원 2주년 비결은 '따뜻함'"

저스트비 홍대선원 2주년 개원 기념 파티

9월 1일 서울 홍대선원서
2년간 여정 살피는 전시회
핸드팬 등 프로그램 체험
단체 공연·경품 추천까지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홍대선원 2주년 기념 파티에 모인 참가자들이 2주기를 축하하는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주년의 비결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따뜻함'이죠."

9월 1일 오후 2시,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이하 홍대선원)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2022년 10월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문을 연 홍대선원이 개원 2주기를 맞아 '2주년 기념 파티'를 개최한 것.

이날 모인 사람들만 무려 150명. 홍대선원 안팎에는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선원 밖 코인세탁방에서는 'Justbe 0_2' 전시회가 열렸다. 'Justbe 0_2'는 홍대선원의 시작부터 2년이 흐른 지금까지의 여정을 사진에 담은 특별 사진 전시회다. 전시회 사진을 살펴본 한 불자는 "스님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지금의 홍대선원이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원 안에서는 '웰컴 드링크 티텐딩(차담)'이 한창이었다. 준한 스님과 스태프들은 연신 차를 내리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이죠" "좋은 인연입니다" 등 스님과 스태프의 따뜻한 환대에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핸드팬 체험에 참여할 분들은 5층 법당으로 모여주세요."

오후 3시부터는 홍대선원의 수행·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첫 시간은 이현국 SND 핸드팬 아카데미 원장의 지도로 열린 '핸드팬 체험'. 핸드팬은 타원형의 악기로 공명과 진동을 이용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은 핸드팬을 연신 두드리며 소리를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도로시 안무가의 '프리댄스', 법증 스님의 '선(禪) 태극권'이 이어졌다.

핸드팬 체험은 홍대선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했다. 친구 따라 2주년 기념 파티에 참여한 나경현(26, 사회복지사) 씨는 "매체에서만 보던 핸드팬 연주를 직접 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 됐다"며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강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와는 다른 따뜻한 모습"이라고 후기를 전했다.

이후 행사는 단체 공연과 경품 추천으로 마무리됐다. 핸드팬, 거문고, 칠레 출신 선원 스태프 제레미의 노래와 춤은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트를 던져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품 추천은 스님들이 직접 선물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선물은 티베트 불상부터 핸드블랜더, 화장품 세트 등으로 다양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홍대선원이 2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따뜻함'"이라며 "각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상지도자 역량 '업그레이드' 강좌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9월 8일부터 총 10강 진행

지도법 코칭 등 실무 중심 구성
평가 따라 우선 파견 대상 지정
'16기 명상아카데미 강좌' 진행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9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강좌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명상지도자의 지도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특별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 스님)는 9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강좌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강좌에서 협회가 처음 시행하는 것은 '명상지도자 지도역량 업그레이드 특별과정'이다. 협회 소속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취득자(1급, 2급, 트레이너, 디렉터)들이 현장에서 명상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강의는 9월 8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서울 법련사 2층 설법전에서 열린다. 총 10강으로, 대면·비대면 격주로 진행된다. 강의 프로그램은 △명상지도법 코칭(일중 스님) △명상강의안 작성법(이주현) △명상프로그램 홍보활동 방법(박희승) △선명상지도법 실습(박희승·금강 스님)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종강 후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상·중·하로 등급이 나눠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명상지도자 요청 시 우선 파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강의는 전체 강의 80%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이수할 수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일중 스님(문사수명상연구원 원장)은 "협회 자격증은 있지만 현장에 나서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명상지도사들을 위해 이번 특별과정을 개설했다"며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수강생들을 지도할 있도록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2개의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9월 5일부터 '제16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연다. 12월 7일까지 총 10강으로 구성된 명상아카데미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반은 매주 수요일, 심화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기초·심화반 모두 비대면 강의로 이뤄지며 인터넷 녹화 강의도 함께 제공된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진행되는 명상아카데미 강좌는 22개의 명상 단체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의 02-953-5307 김민재 기자

현대인 위한 생활수행·포교 어떻게 할까

한마음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
8월 29일~30일 경주 황룡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방안을 공유하고 연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연수과정(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진행했다.〈사진〉

전국 각지의 조계종 소속 스님 31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 과정은 대행 선사의 주요 수행법인 '주인공 관법'에 대한 소개와 시대의 변화에 맞춘 포교 방법 모색, 법회 운영에 대한 실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연수교육을 총괄한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은 "이번 연수는 포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스님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생활수행의 실천과 체험을 위해 '화엄세계'라는 소그룹별 심층 토론 형식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수미산원정대 7기 졸업… 78명 배출

8월 31일, 봉은사 법왕루서
8기 입학식도…112명 입학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서릿발 동안거를 지낸 아홉스님의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한 수미산원정대가 7기 졸업생 78명을 배출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8월 31일 경내 법왕루에서 '수미산원정대 제7기 수계법회 및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졸업생들은 총 12강에 걸쳐 상월결사의 의미부터 부처님의 이해, 불교 교리와 계율, 수행, 의례와 문화, 역사, 과학 등을 교육받았다. 이날 졸업과제를 이수한 78명이 졸업했다.

같은 날 경내 보우당에서 '수미산원정대 제8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거행됐다. 신입생 112명과 단장 원명 스님, 상임지도법사 종호 스님을 비롯한 7기 졸업생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가령 기자

66돌 복지법인 혜명 "자비세상 이루자"

9월 2일 혜명메이빌 대강당서
법인 설립 66주년 기념식 개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을 사회복지를 통해 실현하는 사회복지법인 혜명이 설립 6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혜명(이사장 태원 스님, 도선사 주지)은 9월 2일 혜명메이빌(구 혜명보육원, 원장 박혜정) 대강당에서 '혜명 설립 6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후원자의 작은 자비실천의 나무가 자비나눔 사회라는 큰 숲을 이뤘다는 의미에서 '나무가 숲이 되어'를 주제로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혜명 이사장 태원 스님은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뭇 중생을 두루 살펴 구제해 주실 때 복지법인 혜명은 관세음보살의 천 개의 손 중 하나, 천 개의 눈 중 하나가 돼 사회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2024 영화선사 방한법회

1차 10월 12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화엄경〉 강설

2차 10월 13일(일)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일원역)
1:00~2:40 정토법회(〈아미타경〉 독송 및 염불)
3:00~5:00 '정토왕생과 염불' 법문

3차 10월 19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유마경〉 강설

4차 10월 20일(일) 서울 길상사
11:00 '미국 위앙종의 정수' 초청 법문



7일 집중 수행 '관음칠'
■일 시 : 9월 29일(일) ~ 10월 6일(일)
■장 소 : 청주 보산사(오송역)
7일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및 관세음보살 염불 집중 수행

■문 의 : 대지스님 010-6788-8451 / 현공스님 010-6351-6391
■주 최 : (사)위앙종

사단법인 위앙종
네이버카페 웹사이트

2024년 9월 학기 입학생 모집

자 격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
개 강 2024년 9월 23일(월요일) 오전 10시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수업
입학금 10만원
수업료 1학기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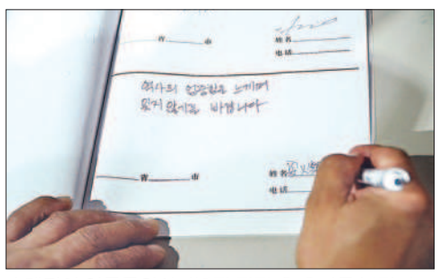
수업일정
1학기 2024년 9월 23일~12월 20일까지
방 학 2024년 12월 21일~2025년 3월 4일까지
2학기 2025년 3월 3일~7월 11일까지

연 수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
자 격 수료후 면접통과
기 간 2025년 11월 11일~12월 10일까지(1개월)
서 품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비 용 100만원(승복+장삼비)

적멸보궁 태황사 부설
강남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로대로 117 용전빌딩 4층
홈페이지 https://gangnambu.org/entrance
전화번호 02)532-0012


안중근 의사 흉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하는 모습.


중국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순례단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순례단이 안중근의사기념관 관람 후 후기를 남겼다.


731부대죄증진열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순례 출발 전 버스에서 찍은 기념 사진.

선조들 독립열망 서린 곳서 '한반도 평화' 꿈꾸다

조계종 민추본, 북중접경지역 · 백두산 평화순례 현장

8월 29일~9월 1일…60여 명 동참
항일운동 발자취 걸으며 계승 다짐
"아픔의 역사 되풀이 되지 않아야"

중국=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선조들의 독립열망이 배어있는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성찰하는 뜻깊은 순례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평화순례에 나섰다. '제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현장순례 일정이다.

순례에는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과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해 민추본 이사 지일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장흥 보림사 주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8기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생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은 "그간 무더위 속에서 (제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실내강좌를 모두 수료하고 평화순례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향후 여러분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불교 교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알찬 순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사무총장 덕유 스님도 "북중접경지역은 우리 민족 고대사의 주 무대이기도 하면서 항일운동의 근거지이다. 단순한 유적지와 관광지를 찾아보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통일을 생각하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두 시간여를 날아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순례단은 첫 일정으로 동북열사기념관을 방문했다. 1933년 9월부터 1945년까지 하얼빈 경찰청으로 쓰인 이곳은 일제의 총칼에 맞선 수많은 항일열사가 감금돼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한 장소다. 해방 후 중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동북열사기념관'으로 명명, 100여 항일열사의 영정을 세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모셔진 100위 가운데 32위는 허형식, 박진우, 양림 등 조선인 항일열사 영정이다.

순례단은 항일운동 역사가 기록된 전시물을 살펴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동국대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경 학생은 "항일운동을 펼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게 살피고 정치, 이념 등에서 벗어나 항일운동의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호텔 회의실에서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의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분단, 그리고 평화통일의 미래'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순례단은 다음날인 8월 30일,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실험, 세균전의 증거를 전시한 731부대죄증진열관을 찾았다. 거대한 관 모양으로 지어진 죄증진열관을 들어서자 '너희들(일본군)의 죄는 부정할 수 없다. 그 모든 악행, 죄의 증거가 여기 진열돼 있다'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일본군의 전쟁 범죄의 참혹한 실상을 관람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얼빈역에 자리한 안중근의사기념관 탐방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순례단은 안중근 의사 흉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담은 각종 사료와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지점의 바닥 표지석 등을 둘러본 순례단은 "역사의 엄중함을 느끼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독립만세" 등의 후기를 남겼다.

조미애 민추본 행정관은 "일제강점기 피해는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는 아픔의 역사"라며 "일제의 전쟁범죄와 피해 역사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운영 전시관이 세워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의 흔적들을 되찾고, 독립운동의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산에 새긴 통일 염원…분단 상처 어루만지다

민추본, 8월 31일 백두산 순례로 일정들 마무리
맑은 천지서 평화 발원 "자유롭게 장군봉 오가길"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순례단.

"북파의 천지도 물론 좋지만, 자유롭게 동파를 넘나들며 백두산을 조망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랍니다."(김미정)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아온 분단의 역사가 나, 우리의 역사임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박은정)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31일 '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평화순례' 마지막 일정으로 민족의 이야기를 품은 백두산 북파 일대를 찾아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화합을 기원했다.

북파에서는 북한에서 오르는 동파(장군봉)의 장엄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순례단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백두산 산문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일정을 동행한 현지인가이드는 "이날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은 1만5000여 명"이라며 "1년 중 파랗고 맑은 천지를 볼 수 있는 건 고작 20일뿐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했다.

다시 몇 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오르자 해발 2750m를 자랑하는 백두산의 위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백두산 정상 부근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과 푸른 천지가 순례단을 맞았다.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돼 한참이나 천지를 바라본 순례단은 저마다의 소망이 천지에 닿길 기도했다.

특히 동파를 넘어다본 순례단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에 대한 바람이 천지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퍼지길 간절히 발원했다.

순례 동참자 임차순 씨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남북의 객관적인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하면, 그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은 장백폭포로 이어졌다. 장백폭포는 천지의 물줄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끝없이 흐르는 물줄기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마저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순례단은 다시 고속철을 타고 장춘역으로 이동해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내영 기자



最古 불교축제 팔관회, 부산서 재현된다

부산불교聯, 9~11월 팔관회 주요 행사 개최

국태민안, 부산시 발전 기원
명상걷기, 수계법회 등 진행
부산 유일 계승 불교문화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우리 민족 최고(最古) 불교 축제이자 국가행사인 팔관회가 재현된다. 팔관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와 더불어 우리 민족 불교 전통 축제이며 부산불교에서 유일하게 계승 보전하는 불교 전통문화유산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9월과 11월 동안 △선재동자문화전승단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팔관재계수계법회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등을 열어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를 널리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가장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팔관회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팔재계체험걷기대회 및 수계의식을 통해 팔관회 저변을 확대하고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마정수기 법회로 미래세대의 팔관회 전승활동과 불자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과 11월 동안 2024팔관회 명상걷기대회 및 팔관재계수계법회 등 다양한 행사로 팔관회를 널리 알린다.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본격적인 팔관회 시작을 알리는 '2024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는 9월 20일 오후 7시 부산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민 등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며, 이날 참가자들은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는 공개 생방송을 들으며 걷기대회에 동참한다. 부산불교방송 BBS가 생방송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팔관회와 팔재계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명상 실참 및 퀴즈 풀기에 동참한다. 퀴즈 참가로 선물을 받는 시간도 마련되며 완주 후에는 어울림한마당이 펼쳐져 경품추천 및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걷기대회 구간은 약 2.5km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 접수 및 참여사찰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하이라이트 '2024 팔관회'

본 행사인 팔관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10월 19일은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가 열리고, 10월 20일 오후 2시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진행된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당시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던 법회를 재현한다. 법회에는 부산시장 등 내빈이 참석하고, 사부대중은 인왕반야경 호국품으로 호국기도문을 올린다. 백희가무는 호국 및 불교를 주제로 한 공연이다. 10월 21일 오후 2시에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미래세대 팔관회 전승 및 불자양성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전승 및 불자 양성을 위해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을 모집하고 불자양성에 주력한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관련 행사 참여와 호국 관련 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수계의식을 진행해 팔관회 호국정신 및 수계의 의미를 전한다.

10월 19일 열릴 선재동자 및 마정수기 수계법회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고 불명을 받아 불연을 맺는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범어사 내 특설무대에서 오전 11시, 마정수기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Turn Toward Busan

부산 불교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 묵념 및 추모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의 날이다. 부산 지역 사찰들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1분 동안 11번 타종하고 추모 순국선열을 추모한다.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 백중기도 자비나눔 회향

9월 2일 부산 동구청서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선우스님) 무진등이 9월 2일 부산 동구청에서 '불기 2568년 백중 자비의 쌀 및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서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은 백중 기도 49일간 십시일반 모은 백미 550kg와 라면 60박스를 부산 동구청에 전달했다. 성품은 백중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의 기부로 모금됐다. 백미와 라면은 지역 내 소외 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박동범 여래사불교대학 부학장, 신용숙 여래사 법우회 부회장, 정금미 총무를 비롯한 여래사불교대학 동문과 재학생들과 김진홍 동구청장과 동구청 복지관계자가 참석했다.

박동범 여래사불교대학 부학장은 "백중 기도 기간 동안 동참해준 불자들의 정성을 소외 계층을 위해 회향할 수 있어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불산 케이블카 절대 안돼!"

통도사, 9월 3일 총궐기대회
1000여 사부대중 거리행진

"자연도 문화유산도 지구도 망치는 케이블카 반대한다!"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웠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울산사암연합회는 9월 3일 울산 시청 및 거리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울산 시청에서 출발한 거리행진에는 통도사 사중스님들과 울산사암연합회 대중스님들을 비롯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줄을 이었고, "자연도 문화유산도 지구도 망치는 케이블카"라고 규탄했다.

궐기대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이 참여했으며 주지 현덕 스님,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가 연대했다.



걷기행진에 앞서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은 목소리를 높여 "케이블카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기획"이라며 "실효성 없는 공사 계획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영축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써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울산사암연합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 서한'을 전달하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한을 통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신불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 중 하나로, 수려한 경관과 함께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불산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생존이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공사 계획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불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영축산과 신불산을 지키기 위해 통도사 사부대중과 불자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베트남 빈곤 아동 위한 자비나눔

부산불교복지협, 8월 28일~9월 1일 베트남서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대종사)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베트남 일대를 방문해 지역 빈곤 아동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해외지원사업 및 우수종사자 연수로 진행된 이번 해외 방문은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대종사(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를 비롯해 성문 스님, 석산 스님, 효문 스님 등 출재가 30여 명이 동참했다.

먼저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8월 28일 빈곤아동이 밀집 거주하는 베트남 하차우면을 방문해 2000달러를 지원했다. 성금은 1100명의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SOS 응급키트' 구매에 활용된다. 아울러 아동들에게 제공될 간식 1100인분(150만원 상당)을 함께 기부했다. 이번 해외지원사업은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에서 후원금 1500만원을 후원해 성사됐다.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베트남 일대를 방문해 지역 빈곤 아동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회장 정여 대종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현장의 열악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 및 복지시설이 특히 부족하다"며 "베트남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렇게 성대하게 맞아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을파소 관음사 운곡 스님 독거노인돕기 성금전달

9월 3일, 부산 금정구청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이 9월 3일 부산 금정구청에서 독거노인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성금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온천천 야외 문화광장에서 진행한 선명서화 나눔전으로 마련한 성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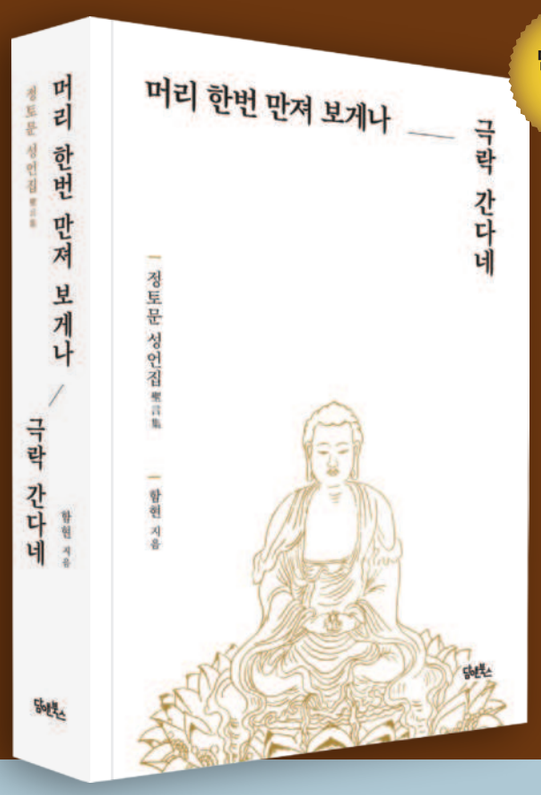
전달식에서 운곡 스님은 "나눔행사를 원만히 회향해 독거어르신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며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 극락 간다네



담앤북스 최신간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

늦여름, 지리산 산사서 재즈 선율에 취하다

구례 천은사, '2024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개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8월 30~31일 일주문 야외무대서
'쉼을 위한 자발적 고독' 주제로
'오:늘' 등 정상급 재즈그룹 공연



지리산 천은사는 8월 30일~31일 양일간 일주문 앞 야외무대에서 '2024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난 지리산 깊은 곳에서 한 여름밤의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8월 30일~31일 양일간 일주문 앞 야외무대에서 '2024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다양한 음악회를 선보였던 천은사는 올해 국내 최고의 재즈팀들을 초청, 지리산을 재즈 선율로 물들였다.

천은사는 "이번 페스티벌 슬로건은 '고독(Solitude)'이다. 타인에게 소외된 고독이 아니라, 본인의 쉼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것"이라며 "힘겨운 삶에 지친 이에게 이번 행사가 사색의 시간, 영성의 성장,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지리산과 구례에서 재즈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며 "특히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 즐기며 휴식 같은 공연, 휴가 같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세계 정상급 재즈그룹인 오:늘(O:neul), 라임 엑스엘(LIME XL), 찰리정 카이라쉬 밴드(Charlie Jung Kailash Band), 골든스윙 밴드(Golden Swing Band) 등이 참여해 재즈 음악을 선보였다. 플루겔혼,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퍼커션 등 재즈의 깊이를 더한 악기와 보컬들의 감미로운 소리가 지리산 곳곳에 울려 퍼졌다.

페스티벌에는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정청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재즈 공연을 만끽했다.

한편 지리산 천은사는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를 열며 지리산의 대표적 문화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전달

8월 30일 진안 문화의집서



진안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는 8월 30일 진안 문화의집에서 '제11회 마이산탑사 봉사나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갑룡장학회는 초중고등생 18명과 대학생 1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회에 행복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그들을 격려하는 갑룡장학회의 뜻이 결합해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쌍봉사, 추석 음식 꾸러미 나눔

8월 31일 취약계층 가구에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쌍봉사 반찬나눔봉사단(회장 김진옥)과 함께 8월 31일 떡갈비, 햅쌀, 국수, 컵라면, 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된 명절음식 꾸러미를 만들었다.〈사진〉

이날 만들어진 명절음식 꾸러미는 진안지역의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80세 이상의 어르신 가정과 쌍봉사 반찬봉사단의 추천이나 마을 이장, 마을 부녀회의 추천을 받은 120가구에 전달됐다. 또 대성동 마을회관 등에 햅쌀과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화 소실 '내장사 대웅전' 복원 본격화

9월 5일 복원불사 기공식 봉행
143㎡ 규모…2025년 준공 예정

지난 2012년 10월 불의의 화재로 소실돼 2015년 복원됐으나 2021년 3월 방화로 다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위한 착공식이 봉행됐다.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9월 5일 경내 대웅전 건립부지에서 대웅전 복원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했다.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은 "천일참회기도 회향 후 대웅전 기공식을 갖게 됐다"면서 "내장사 사부대중은 이 자리에서 맺은 인연을 오래 기억하며 도량을 열심히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께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죄스런 마음이 든다"며 "내장사 대웅전 복원불사 기공식이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상생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대웅전 복원불사가 원만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축사를 통해 "내장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대웅전이 원만하게 복원되기를 정읍시민들과 함께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을 마친 내장사 대웅전은 143㎡(약 43평)의 규모로 정면5칸 측면3칸 외3출목 내4출목 다포계 팔작지붕형태의 구조로 건축 될 예정이다. 내장사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의 골조건축에만 자체예산 약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내장사는 9월 5일 경내 대웅전 부지서 '대웅전 복원 착공식'을 봉행했다.

"직지 초록 백운 화상 가르침 기립니다"

정읍사암연, 백운화상 다례재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초록한 백운 경한 화상의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9월 4일 정읍 미륵암 미륵전에서 제2회 백운 경한 화상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은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 등재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대원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백운 선사의 선풍을 세상 밖으로 출현시키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보다 깊이 배움으로써 바른 수행과 정진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만해 선사 탄신 145주년 다례재

8월 29일, 홍성 만해사서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만해 용운 대선사의 탄신을 기리는 추모다례가 열렸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이 8월 29일 홍성 '만해한용운 생가지' 내 만해사에서 만해 용운 대선사의 탄신 145주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도신 스님은 "만해 선사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차사상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며 "선사의 정신을 기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후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부여 무량사, 가을맞이 산사음악회

8월 31일 극락전 앞마당서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가 8월 31일 경내 극락전 앞마당에서 '제1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무량사를 찾은 지역주민과 대중은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낭만을 나누고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며 "천년고찰 무량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예술인, 유명가수들의 공연을 마음을 다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영불교아카데미 경전강좌 개강

9월 2일 통영거사림회관서



통영지역 불자들이 경전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강의가 마련됐다.

통영불교거사림(회장 안휘성)은 9월 2일 통영불교거사림회관에서 '통영불교아카데미 경전강좌'를 개강했다.〈사진〉

강좌는 매주 월요일 보현사 묵원스님이 능엄경을, 매주 금요일은 도솔암 주지 정왜 스님이 천수경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이번 경전 강좌에는 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한 불자와 신행단체 회원들 중 48명이 수강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4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4.9.1 - 10.25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hfm@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논문접수 '24.9.1~'24.10.25 → 1차심사 결과발표 '24.11.4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24.11.15

우수논문 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접수 및 문의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 학회 사무국
이메일 : tosok.hfm@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티베트불교 17대 카르마파, 인도 귀국 하나

2017년부터 미국 장기 체류
달라이라마와 회동…귀국 추측
시킴 '룸텍 사원' 거주 고집 중
시킴인사권, 정부에 귀국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불교 카르마 카규파를 이끄는 17대 카르마파가 달라이라마와 회동을 가져 그의 인도 귀국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인도의 '더 트리뷴(The Tribune)'을 비롯한 외신들은 17대 카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 스님이 지난 8월 25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도로 귀국 중이던 달라이라마를 만났다고 8월 31일 보도했다.

카르마파는 티베트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판첸라마가 중국당국에 의해 구금돼 행방이 묘연해진 후 카르마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00년 14세였던 카르마파는 극비리에 인도로 망명해 달라이라마의 환영 하에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인도를 떠난 후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인도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중국정부에서 카르마파를 목표로 한다는 첩보를 받고 카르마파에게 조속한 귀국을 권했다. 그러나 카르마파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사이 인도망명인 신분을 포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도 비자를 신청했으나 인도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인도정부는 신자가운데 중국정부 관계자가 많고 중국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카르마파가 도미니카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르마파는 망명 직후부터 전대 카르마파 주석 사원인 인도 시킴(Sikkim)의 룸텍 사원으로 가길 원했으나 인도정부가 이를 거절해왔다"며 "인도정부는 대신 델리 근처 드와르카의 대지를 제공해 새로운 사원을 세울 것을 권유했으나 카르마파 측이 룸텍 사원만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카르마파와 같이 시킴의 정치인과 불교계 인사들은 그가 시킴으로 돌아오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왔다.


달라이라마와 17대 카르마파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출처=카르마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카르마 카규파의 지도자급 스님들은 "카르마파 법좌가 룸텍 사원에 있기 때문에 카르마파가 인도 밖에 머물러서는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카르마파의 조속한 인도 귀국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달라이라마와 카르마파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카르마파의 인도 귀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텐진 탁라 달라이라마 사무국 비서는 "두 분이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은 맞으나, 개인적인 대화였을 뿐 카르마파의 인도 귀환에 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리히에서 비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를 만난 카르마파는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라이라마 존자를 직접 뵀을 때, 영상으로 뵐 때보다 훨씬 연세 들어 보이고 목소리도 약했다. 예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에 견딜 수가 없다"면서 "달라이라마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힘을 써오셨는데 이리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슬픔과 감사의 감정이 경쟁하듯 느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붓다' 파드마삼바바 조명 컨퍼런스

8월 28~29일, 인도 비하르주서
영화 상영, 사전 출간식도 진행

인도 히말라야 지역부터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붓다'로 존경받는 스승인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를 집중 조명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인도에서 열렸다.

인도 언론사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지난 8월 29일 인도 비하르(Bihar)주 나비 날란다 마하비라하에서 8월 28~29일 양일간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삶과 유산'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24개국 학자와 학계 대표들이 파드마삼바바가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 전파를 위해 행한 노력과 그의 공로에 대해 토론했다.

파드마삼바바는 8~9세기경의 전설적인 불교 수행자다. 티베트 최초의 불교사원 삼예 사원을 건립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파드마삼바바가 히말라야에 불교를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티베트, 네팔, 부탄, 인도 등 히말라야 문화권에서는 파드마삼바바가 두 번째 붓다로 존경받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 공개된 〈팔리어-힌디 사전〉을 들어보이는 내빈들.
사진출처=타임즈오브인디아

개회식에서 라젠드라 비슈와나트 알레카르 비하르 주지사는 "파드마삼바바의 영적 여정은 오늘날 세계에서 불교 사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의 삶과 유산은 단순한 불교 사상 전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규범 등 광범위하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부탄왕실사원 수석비서 우갠 남걜 스님은 "파드마삼바바의 철학은 부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부탄뿐만 아니라 해외각국 학자들이 파드마삼바바의 삶과 유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컨퍼런스의 의의를 짚었다.

컨퍼런스 관계자는 파드마삼바바가 불교의 전통적 대기설법을 따라 포교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파드마삼바바를 둘러싼 전설과 기록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 정보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주제는 그를 어떻게 문맥화, 지역화 했는가라는 내용"이라며 "그는 불법의 핵심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각 장소의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파드마삼바바가 직접 불교를 전한 지역과 그 영향권에서 가르침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함께 다뤄졌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영적 연결을 묘사한 다큐멘터리 영화 '인도에서 태국까지: 신성한 유물의 순례'의 특별 상영이 진행됐다. 또한 나바 날란다 마하비하라의 전임 연구원 우마 샹카르 비야스 교수가 편집한 〈팔리-힌디어 사전〉의 출간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교육으로 미래 희망 심어요"

로터스 아웃리치, 교육봉사 12주년
취약계층 대상 학습센터 15개


부처님의 미소 교육센터에서 야간 수업을 받는 인도 어린이들. 사진출처=로터스아웃리치

인도의 불교봉사단체 '로터스 아웃리치(Lotus Outreach)'가 교육봉사를 시작한지 12주년을 맞이했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지난 8월 28일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티벳불교의 지도자 종사르 잠양켄체 린포체가 1993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로터스 아웃리치는 개발도상국 어린이과 여성의 교육, 자립을 돕는 봉사단체다. 취약계층 교육, 정수 공급, 심리상담, 보건 사업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현지 비영리 단체인 구루 크루파 재단(GFK), 타밀나두 평화의 정원 프로젝트 등과 제휴를 맺어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을 위한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로터스 아웃리치는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야간 학습센터 15곳을 설립했다. 소작농, 채석장 노동자 등의 자녀 보호소이자 교육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습센터는 조정센터, 정규센터로 나뉘어 각각 82명, 570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교육받고 있다.

로터스 아웃리치 관계자는 "교육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교육의 부재는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업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외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벳츠인 사원, 화마 상처 딛고 일어서다

건물 · 문서 복원 불사 진행
2025년 재개원 목표 추진


벳츠인 사원의 타일러 모리구치 주지스님이 임시 법당에 모인 불자에게 법요집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출처=시애틀 타임즈

미국 시애틀 센트럴 디스트릭트 지역 일본계 불교사원인 벳츠인 사원이 복구 사업에 돌입했다.

워싱턴주 일간지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는 8월 28일 방화로 피해를 입은 벳츠인 사원의 복구 소식을 전했다.

벳츠인 사원은 시애틀 지역의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중심으로 음악공연, 운동대회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2024년 새해 전야 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사원 전체가 전소됐다. 사원은 복구를 위해 문을 닫고 이웃 건물로 임시 이전했다.

벳츠인 사원 주지 타일러 모리구치 스님은 "벳츠인 사원은 일본계 미국인이 향수를 달래는 곳으로 일본 전통 명절 오봉(お盆)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이전한 임시 사원은 협소해 이전만큼 신도가 올 수 없어 연로한 불자들의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겪을 수 있기에 복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원은 2024년 1월부터 사찰 복원 불사를 통해 법당, 체육관, 난방·보안·시청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금을 모연하고 있다. 모리구치 스님은 "화재 보험금은 복원 비용에 비해 부족해 불사를 추진 중"이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불사와 복원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윙 루크 박물관과 지역 봉사자들이 기록 보관소에 있던 최소 2만여 건의 문서를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팔각오층석탑 봉안 성보
(남양주 수종사, 조선 15세기 등, 보물).

경기 북부 지역 대표 불교문화유산 '한자리에'

2024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보물 15건 등 93건 262점 전시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첫 공개



비로자나삼신괘불(남양주 봉선사, 조선 1735년, 보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경기 북부 지역 불교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된다. 본사인 봉선사를 중심으로 본·말사가 소장한 대표 성보 문화를 집중 조명,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와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2024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를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봉선사 본말사의 성보문화유산, 폐사지 발굴 유물, 간행 불서 등 보물 15건과 유형문화유산 15건, 유형문화유산자료 4건 등 총 93건 262점이 전시된다. 이를 위해 봉선사 본·말사는 물론 해인사, 통도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사찰과 기관 26곳의 협조를 받았다.

특히 높이 약 8m 규모의 대형 불화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과 고려 관음보살상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불상에 광배까지 남아 있어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은 흥국사 '목조석가모니삼존상' 등 주요 문화유산이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전시는 1부 '봉선사, 산문을 열다', 2부 '불교, 경기 북부를 물들이다', 3부 '선지식,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봉선사의 창건과 역사, 광릉 관련 성보가 전시된다. 봉선사는 969년(광종 20) 운악사라는 이름으로 산문을 열었다. 이후 세조와 정희왕후와의 인연으로 사세를 일신했고, 교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세조 어진 초본'과 해인사성보박물관 소장 '세조 대왕 진영'이 최초로 비교 전시된다.

'불교, 경기 북부를 물들이다'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을 장엄한 봉선사 본말사의 찬란한 불교문화가 소개된다. 삼화상(지공·나옹·무학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양주 회암사, 조선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수종사, 근대 불교회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흥국사, 불암사 등의 불교문화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월초·지월·운허 스님 등 여러 선지식은 봉선사 본말사를 이끌며 불교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3부 '선지식, 미래를 꿈꾸다'에서는 독립운동과 교육, 후학 양성에 힘쓴 근현대 선지식의 업적을 살펴본다.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은 9월 3일 박물관 로비에서 성보이운식을 진행하고,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개막식을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천년의 시공을 넘어 교종본찰의 종풍과 선종의 수행정신을 함양한 봉선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뜻깊다"며 "유구한 역사와 선조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성보를 친견하면서 신심을 더욱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법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특별전은 조계종 제25교구 소속 사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예경의 대상이자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봉선사 본말사의 찬란한 성보들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봉 스님은 이어 "금년도에는 봉선사 특별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근현대 봉선사 선지식'에 대한 조명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왕실 원당' '불교회화' '불교 조각' 등을 주제로 왕실 관련 주요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올해 초 보스턴 미술관에서 불조사리를 환지본처한 인연과 때마침 불교중앙박물관과 봉선사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진다"며 "역대 조실스님들의 뜻을 이어 본말사 스님들과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10월 25일까지 이메일 제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사)한국관광학회와 함께 '2024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가치와 의의를 학술 차원에서 살펴보고, 한국 불교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템플스테이 또는 사찰음식 관련 자유주제다. 내·외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논문 제출 기간은 10월 25일까지며, 관련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tosok.hf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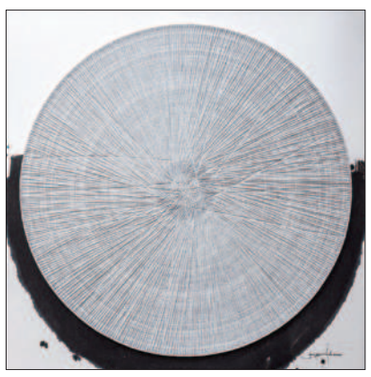
심사와 시상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10월 25일 서면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선정 논문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무한의 線에 담긴 禪을 탐구하다

무우수갤러리, 9월 11일~10월 14일
서정민 작가 초대전 '무한의 선(禪)'
선(線) 너머 무한 세계 경험 선사

반복적으로 그려낸 선(線)에서 불교적 선(禪)을 탐구하고, 비워진 여백의 선에서 수행과 명상의 본질을 성찰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서울 무우수갤러리(대표 이연숙)는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정민 작가 기획 초대전 '무한의 선(禪)'을 개최한다.



서정민, LINES 36, 140x140cm, 한지, 2022.

전시에서는 서정민 작가의 '선(Lines) 시리즈' 12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 작가는 '한지'를 사용해 습작 서지(붓으로 한지에 서체 연습을 했던 종이)를 수집한 후, 두루마기 기법(무엇인가 적혀 있는 종이를 둘둘 만 것)을 응용해 한지를 말고, 자르고, 붙이고 쪼개 '한지 토막'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한지 토막의 단면은 글의 형상이 바뀌어 먹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선들만 남는다. 이와 같이 글이 선으로 바뀌는 지점의 조각들을 콜라주 방법으로 화면 위에 붙이고 쌓아 무엇(생명체)들이 움직이는 듯한 형상의 집합체를 구현했다. 때로는 동그랗게 말거나 평평하게 깎고 긋는 행위로 생동감을 살리기도 한다.

'한지 화가'라는 애칭까지 생긴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적 수행의 의미가 담긴 선(禪)을 통해 보이는 선(線) 너머 극한의 무한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한다.

서정민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서지를 쌓아 화면의 공간을 채우고 비우는 일종의 묵언수행(默言修行)과 같은 반복적인 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무위자연의 선(線)과 불교적 의미의 선(禪)을 드러내는 것이 작업의 요체"라며 "우리 정서가 밴 먹과 한지를 끊임없이 맞대고 잇고를 반복함으로써 드러난 선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흥과 신명을 발견하고, 비움으로써 드러나는 여백을 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불교의 본질을 성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연숙 무우갤러리 대표도 "2024 무우수갤러리 기획 초대전 '무한의 선(禪)'을 통해 서정민 작가가 손끝으로 전달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현대사회에 불어오는 온기를 함께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무상 스님



흥선 스님



도운 스님

무상·흥선·도운 스님, 조계종 명장 지정

문화부, 9월 2일 종무회의서
가사 · 탁본 · 지화 분야 선정

불교문화 발전과 전승에 힘쓴 무상·흥선·도운 스님이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혜공 스님)는 올해 2월 마련된 조계종 명장 지정·지원 규정을 근거로 9월 2일 종무회의를 거쳐 가사 분야에 무상 스님, 탁본 분야에 흥선 스님, 지화 분야에 도운 스님을 각각 조계종 명장으로 선정했다.

가사 분야 무상 스님은 조계종 가사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도편수 소임을 맡아, 40년 이상 전통 가사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탁본 분야 흥선 스님은 '금석문 탁본' 기능을 보호하고, 소중한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화 분야 도운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 도량 장엄 및 지화 장엄을 도맡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진관사 지화학교를 개설·운영하면서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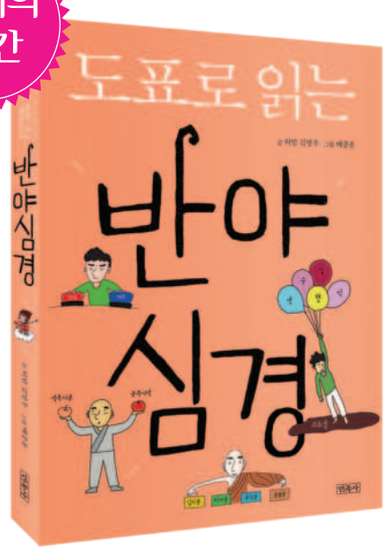
문화부는 "향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활동에 더욱 많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4~9/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수업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동국대학교출판부	6	중국선종사(불조선학총서1)선사상의탄생	인순/유진 한역	운주사
2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3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8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에니어그램행동특징과명상상담전략*명상상담01	인경 지음	명상상담연구원
5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궁금해요불교:매주제마다문제풀이를통해	도업 지음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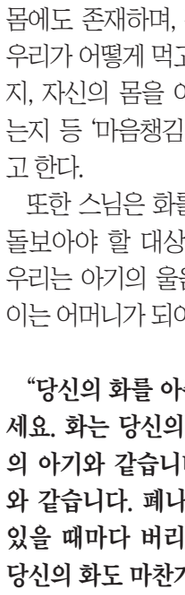
책세상

자존감 높여줄 선지식·고전의 '金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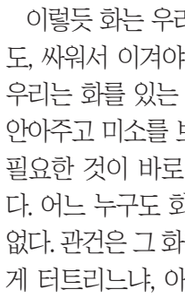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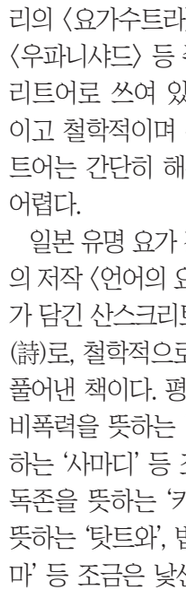
틱낫한 '화' 20년만에 개정판… 원서 근거해 불교적 번역
"당신의 화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화 조절하는 법 배워
불교 경전 · 선지식 어록 담은 '금언집' 발간 잇달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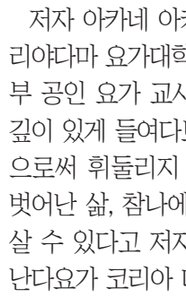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 지음
허우성, 허주형 옮김
운주사/ 1만 5000원



마음이 으뜸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화령 지음
운주사
1만 2000원



언어의 요가
아카네 아키코 지음
한귀숙 옮김
김서진 감수
버터북스
1만 7000원



좁고 깊게 산다는 것에 관하여
단다파니 지음
이소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1만 9000원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스타 강사가 한 말이다. "현대인들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매우 약하다."

내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 정작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왜, 세상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은가'를 되뇌고 분노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알아가야 필요가 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현인(賢人)의 말씀들이다. 최근 출판계에도 부처님, 선사, 명상마스터 등의 금언(金言)들을 담은 책들이 잇달아 발간되고 있다.

당신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

틱낫한 스님의 베스트 셀러 〈화〉가 20여 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다. 틱낫한 스님 하면 〈화〉(초판 2002년)가 연상될 정도로, 이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대중적인 문체나 용어로 번역하면서, 고유의 색깔, 즉 불교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린 측면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운주사에서 발간한 이번 번역본은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 철저히 원서에 근거해 번역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즉 원서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번역에 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플럼빌리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스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번역본이야말로 틱낫한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하겠다.

틱낫한 스님은 '화'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화'에 대해서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스님은 화는 정신적, 심리적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생화학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며,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다. 따라서 화의 뿌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존재하며, 결국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등 '마음챙김 먹기 수행'을 하라고 한다.

또한 스님은 화를 어린아이와 같은,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화를 아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화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아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위나 폐와 같습니다. 폐나 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버리려 하지는 않지요. 당신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이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관건은 그 화를 발산하고 상대에게 터트리느냐, 아니면 그 순간 화를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 짓느냐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깊은 성찰 주는 222개 경구들

현대 사회는 그 속성상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욕망을 부채질한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는 좌절과 분노를 유발한다. 이래저래 현대인은 탐진치 삼독에 빠지기 쉬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출가자나 재가자 할 것 없이 그렇다.

이런 사회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욕망의 성취나 충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으뜸이다.

'나쁜 것은 쉽게 배운다'는 부처님의 우려 섞인 말씀처럼, 중생들로서는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유혹 앞에서 초연하기란 쉽지 않다.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수행이나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가르침을 옆에 두고 읽는 것도 쉽지만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동국대 역경위원,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화령(華靈, 본명 이중석)이 저술한 이 책은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으로 이뤄져 있다.

때로는 죽비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때로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우리 마음을 감싸주고, 때로는 한여름 냉수 같은 시원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가르침들이 담겼다.

자유 위한 요가의 언어들

요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언어가 있다. 바로 산스크리트어이다. 기원전 2세기경 쓰인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를 비롯해 〈베다〉, 〈우파니샤드〉 등 주요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는 까닭이다. 시적이고 철학적이며 상징적인 산스크리트어는 간단히 해석되거나 번역되기 어렵다.

일본 유명 요가 강사 아카네 아키코의 저작 〈언어의 요가〉는 요가의 정수가 담긴 산스크리트어를 이야기로, 시(詩)로, 철학적으로, 사전적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평화를 뜻하는 '샨티', 비폭력을 뜻하는 '아힘사', 삼매를 뜻하는 '사마디' 등 조금은 익숙한 말과 독존을 뜻하는 '카이발리야', 실재를 뜻하는 '탓트와', 법칙을 뜻하는 '다르마' 등 조금은 낯선 표현까지 84가지 '언어의 요가'를 두루 담았다.

저자 아카네 아키코는 인도 카이발리야다마 요가대학을 졸업한, 인도 정부 공인 요가 교사이다. 요가 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삶, 고통에서 벗어난 삶, 참나에 한발 다가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시바난다요가 코리아 디렉터이자 현직 요가 지도자인 김서진이 한국어판 감수를 맡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주에서 요가와 명상을 전하는 '취다선'의 설립자 일소는 "보이기 위한 요가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위한 요가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책으로 〈언어의 요가〉를 추천했다.

요가의 언어를 들여다보며 '언어의 요가'를 실천하노라면 언젠가 '나'와 '참나'가 다름을, '마음'은 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삶, 고통에서 벗어난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

뉴욕 수도승이 전하는 삶의 조언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가? SNS에서 잠깐만 멀어져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1200만 조회수 유튜브의 주인공이자 650만 회 조회수 TEDx 강연의 주인공, 〈좁고 깊게 사는 법에 관하여〉의 저자 단다파니는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좁고 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다파니는 속세와 격리된 힌두교 사원에서 10년 동안 수행한 뒤, 뉴욕으로 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도시 속 수도승이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인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좁고 깊은 삶에 대해 이해하고, '집중'과 '의지'라는 도구를 사용해 좁고 깊은 삶에 도달하는 법을 알려준다.

"좁고 깊은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 혹은 무엇에 몰두하든지 주변의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그 대상에 온전한 관심을 쏟는 삶이다. 이때 당신은 크고 중대한 삶의 목적에 근거해 집중할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모든 경험에 완전히 몰두하며 진정으로 보람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20~21쪽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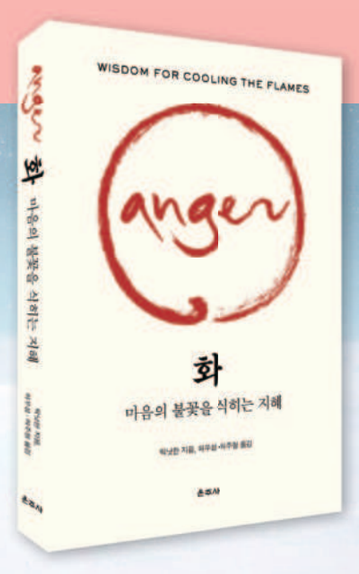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말할 수 없던 시대, 불교 말하다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
박희병 지음
돌베개 / 3만5천원

저서 〈청한잡저2〉 〈임천가화〉 통해
김시습 불교론 · 전체 사상체계 조명
불교 · 유교, 높은 수준서 양자 다뤄
두 사상 우열보다 '공존' 염두에 둬
유교만 아니라 불교 역시 진리 인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임천가화〉가 수록된 〈매월당집〉 표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으로 알려진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1435~1493), 그는 불교를 배격한 조선의 백성으로 살면서 출가를 하고 법명을 받았으며, 불교를 논한 저서를 남겼다. 문학가로 사상가로 또 출가자로 다난한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한 평가와 조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신간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는 김시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이 책은 김시습이 남긴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를 토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불교론과 더불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사상체계를 들여다본다. 김시습이 불교를 말한다.

"나의 이 글은 두 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치력한다. 김시습이 남긴 책 가운데 불교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둘이 전부다."

저자는 위 두 편의 저술을 통해 김시습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술하고 있다. 부처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지, 불법(佛法)의 요체는 무엇이라 생각했는지, 삼세설, 윤회설과 같은 불교 교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군주의 불교 숭배나 출가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출가자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현실불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에 대해 밝힌다.

2부로 구성된 책에서 제1부는 김시습의 불교론에 대한 연구이고, 제2부는 김시습 불교론이 개진된 두 저작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에 대한 역주이다.

김시습은 21세 때(세조 1년, 1455) 삼각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통곡하다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는 삭발하고 출가했다. 법명은 설잠, 호는 청한자이다. 그리고 8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다. 그는 유행을 멈춘 이후에 금오산과 수락산에 머물면서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를 지었다. 〈임천가화〉를 지은 후 승복을 벗고 환속했지만 2년 후 다시 승복을 입고 입산했으며, 죽을 때까지 승복을 벗지 않았다. 이 시기 김시습은 유자로서의 사상적 정체성을 표방했다. 그럼에도 그가 불교를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는 유교와 불교를 겸전함으로써 유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특히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시종 정치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인민성을 기축으로 유교와 불교를 종횡으로 오가며 높은 비판적 수준에서 양자를 다뤘다.

〈청한잡저 2〉는 시종 객과 청한자의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군주의 잘못된 불교 숭배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다. 특히 양 무제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불교의 관점에서 군주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애민의〉나 〈방본잠〉에서 보여준 유교적 정치사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불교라는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유교적 정치사상이 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은 유교만이 진리가 아니며 불교 역시 하나의 독자적 진리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교가 유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김시습은 두 사상의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공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한잡저 2〉에 이어 쓴 〈임천가화〉 역시 김시습의 독특한 사상적 풍모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김시습은 불가(佛家)나 민간에 전해 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또한 군주의 그릇된 불교 숭배를 비판하기도 하고, 승려의 타락상을 주체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상정된 독자는 〈청한잡저 2〉와 조금 다를지라도 반권력적 지향과 높은 비판성은 〈청한잡저 2〉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임천가화〉의 이런 면모는 다분히 김시습의 유교적 감각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이치에 맞게 해석해 내고자 하는 그의 집요한 합리적 노력 역시 마찬가지다. 〈임천가화〉와 같은 반권력적·비판적 성격의 불교 필기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찾기 어렵다.

김시습이 이처럼 20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유·불을 겸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계인'이기에 가능했다. 그는 방내는 물론 방외에도 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실존적 거소는 방내와 방외의 사이, 즉 그 '경계'에 있었다. 그래서 김시습은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사상가로서 김시습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그가 '고통'에 대한 비상한 감수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김시습은 평생 신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자신의 실존이 그런 감수성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불교를 통해 인간의 본원적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유교의 인애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인민적 입장에서 백성의 처지와 삶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교 공부에서 얻은 고통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만 추린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 산책
설담 운성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 1만5천원

"'금강반야'는 어떤 무엇으로도 무너트릴 수 없는 세상 제일의 지혜를 말한다."

〈금강경〉을 산책하듯 가볍게 해설한 해설서가 나왔다. 설담 운성 스님의 〈금강경 산책〉이다.

〈금강경〉은 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금강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선(禪)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깨달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보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강경〉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운성 스님의 〈금강경 산책〉은 〈금강경〉의 한글 경문 핵심만을 추려서 현대인들이 약 30분 정도에 읽을 수 있도록 완성하고, 거기에 어떤 철학적, 관념적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수행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저자는 "경전 문구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핵심을 잘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 이야기 속에 경전의 제목에서와 같이 날카로운 선(禪)의 칼들이 숨겨져 있으니, 그 칼이 제대로 보이는 어느 날부터는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원효 스님의 흔적을 따라서



원효스님, 그 마음을 찾아서
이경렬 지음
우리출판사 / 2만8천원

전국 107개 원효 인연처 순례
원효 스님의 삶과 행적 되짚어
전국 9개 권역과 일정별 코스
시인 감수성과 연구자 관점도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거냐?" "스님, 저는 유혹한 적 없습니다.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볼 뿐이지요"

순간 원효는 온몸에 벼락을 맞은 듯했다. '색안으로 볼 뿐'이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귓전을 때렸다. 원효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옥류천 맑은 물에 뛰어들었다. 정신을 가다듬자 비로소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생겨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을 멸하면 또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나, 원효는 자재무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참된 수행의 힘이 있노라." 원효의 말에 여인은 미소를 머금었다. 여인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재무애 경지를 증득했다. 그리고 그곳에 암자를 열었다. 자재암이다.

신간 〈원효스님, 그 마음을 찾아서〉는 원효 스님과 관련된 전국의 절과 절터를 모두 순례하며 원효 스님의 삶과 행적을 되짚어 본 수상록이자, 관련 사찰 순례 가이드북이기도 하다.

책에 소개된 절과 절터는 모두 107곳으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박2일 또는 2박3일 코스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순례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혔다.

시인이자 교육공무원으로 살아온 저자는 현직에서 은퇴한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조선시대 수난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진했다. 저자가 원효를 만난 건 그 이후 경기도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런 만큼 이 책에는 '시인 이경렬의 구도자적 탐방이야기'란 부제에 걸맞게 관련 사찰의 정보와 함께 시인의 감수성과 연구자의 관점이 돋보이는 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원효가 종교와 세속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무애행으로 과감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언어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종교적 위로와 희망을 설파했다면, 이와 달리 출가자로서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수행 정진, 제자 양성, 불사와 같은 승려 본연의 삶에 충실하며, 이 땅에 화엄종을 연 의상과 대비하며 두 스님의 서로 다른 사랑법을 논하기도 한다.(308쪽)

〈원효의 '해골물과 득도'의 진실〉 등에서 볼 수 있듯 책은 단순한 탐방기를 넘어 연구자의 시선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 이렇듯 이 책은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원효 스님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와 사상은 물론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 이경렬은 1990년 〈우리문학〉으로 등단한 뒤로 4권의 시집을 냈다. 2014년 명예퇴직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조선시대 수난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몰두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원효에 대해 알게 됐고 출간으로 이어졌다. 저서로 시집 〈내 강물의 거주지를 위하여〉 〈산객〉, 수상록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구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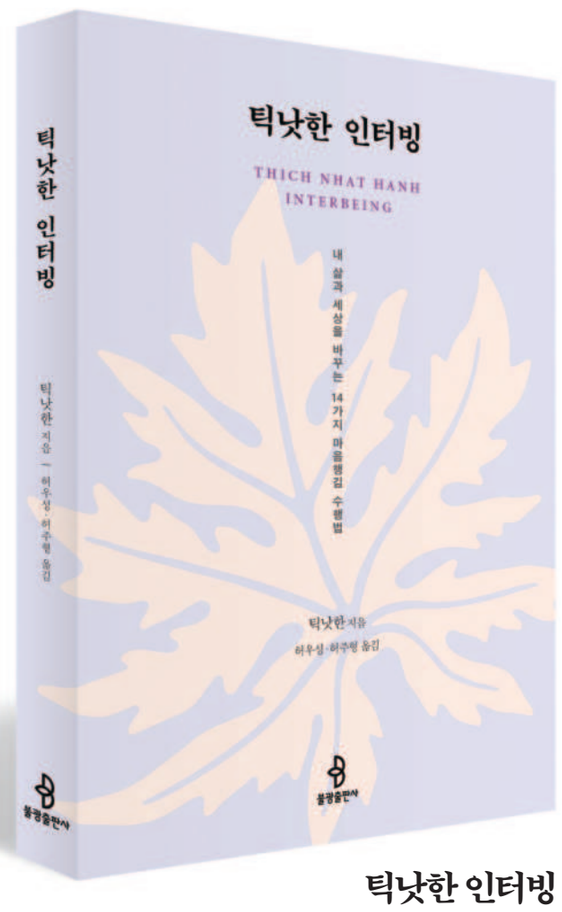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알려주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한 14가지 마음챙김 수행 지침서

틱낫한 스님의 핵심 가르침 '상호존재(Interbeing)'를
삶에 녹여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담아낸 유일한 책

'베트남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틱낫한 스님이 만든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은 전통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걸쳐 현재까지도 틱낫한 스님이 세운 명상 공동체 플럼빌리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상호존재(Interbeing)'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 만물의 연결성을 강조한 이 수행법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종합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지침이자 현대인을 위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틱낫한 인터빙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
틱낫한 지음, 허우성·허주형 옮김 | 264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경율론 잘해야 범패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동주 원명 스님은… 1961년 서울 사자암에서 대은 강백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대교과 과정까지 배웠다. 이후 벽응 송암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으며 1969년 설립된 옥천범음회에서 제1회 영산재 전과정을 이수했다. 1972년 직지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결제때는 해인사 등 선원에서 정진하고 해제 때는 범패 수련 및 연구에 몰두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사자암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완료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계단위원, 성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6년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에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 홍원사 회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홍원사에 들어서면 7층 석탑과 쌍사자, 석등, 포대 화상이 반겨준다. 활짝 핀 능소화는 담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배롱나무의 붉은 꽃은 도량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창건주 동주 원명 스님이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명당을 물색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옛 양천관아 터이고, 그 위에 현대식 건물로 홍원사를 지었다.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인터뷰는 스님의 주석처 홍원사에서 진행했다.

어산(魚山)은 범패, 범음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교의식으로, 소리와 춤이 있다. 어산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장은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 불교의 재(齋)의식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범패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근황을 여쭈었더니 “올 6월에 정오스님과 함께 〈오종범음역해〉를 15년 걸려 출간했기에 숙제를 마친 느낌으로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했다.

곧바로 범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물었다. 스님은 ‘운명’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가 스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염불과 범패에 익숙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등을 다 외웠어요. 아버지를 따라간 절에서 범패를 하고 바라춤을 추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했지요.”

16살 때 심하게 아파서 죽음을 경험했다. 숨만 겨우 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죽더라도 유언은 남기고 싶었다.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 수계식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일찍 출가를 할 것 같았다. 그때 만약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출가하겠다고 결심했다. 17살에 대은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직지사에서 고암 대종사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강백으로 이름난 은사 대은 스님으로부터 대교과를 수료했다. 기억력이 좋으니 아무리 많은 분량을 가르쳐주어도 배우는 대로 다 외웠단다.

스님의 출가 당시에는 서울에서는 사미계 받고 나면 정해진 코스처럼 범패를 배웠다.

“은사 대은 스님께서 ‘범패를 배워야 중물이 든다’면서 출가하자마자 범패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때는 ‘중질할 줄 아느냐?’라는 말은 바로 ‘범패를 할 줄 아느냐’라는 뜻이었어요.”

은사스님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여겼으니, 서울 봉원사에 가서 상주권공(常住勸供)을 배웠다. 상주권공은 처음 범패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죽은 이를 위한 재이다. 이렇게 해서 송암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한 마디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새벽 예불 올리고 시간 나면 연습하고, 저녁 예불하고 시간이 나면 또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송암 스님의 시봉을 제가 도맡아서 다했기에 재하러 가실 때 늘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혼자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선생하고 10번 하는 것이 낫고, 선생님하고 10번 하는 것보다 재장(齋場)에서 재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재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았기에 관련 의식을 이틀 만에 다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어요”

16살 죽을 고비 넘긴 후 佛門 들어
은사 대은 스님 권유로 ‘범패’ 배워
범패, 경율론 바른 이해 있어야 가능

임종 시 가족들 울며 소리치는 것
망자가 生 정리할 시간 뺏는 행위
생의 애착도 원한만큼 좋지 않아

동주 원명 스님은 독강으로 3년 만에 범패 전 과정을 다 배웠다. 다른 사람이 10년에 걸쳐 배울 것을 스님은 3년 만에 다 익혔으니 범패 천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동주 원명 스님은 선방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밤을 새워가며 범패공부를 했다.

“어산을 하려면 경·율·론(經律論)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화엄경〉 〈정토경〉 〈법화경〉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을 만들었기에 경전을 모르면 어산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지요. 영혼 천도를 하려면 영과 마음이 통해야 하기에 계행이 청정해야 합니다. 시식, 대령, 관욕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격이란 법력을 말하는데, 참선이든, 염불이든, 기도든 수행력이 있어야 해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문경 대승사 등 제방 선원에서 칠 년여 참선 공부를 하였다. 선원에 계실 때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지 물으니, 극락암에서 여섯 철을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1972년 동안거 선방에 한 80명 넘게 모였어요. 극락암에 경봉 조실스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은 노장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지도를 받으려고 많은 스님이 모여들었어요. 10월 그믐날 종사영반이 있어요. 해마다 삽삼조사로부터 보조국사, 서산·사명 조사의 다례(茶禮)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영산재를 지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봉 스님께서 사흘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경봉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의식을 좀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의식과 범패를 할 줄 아는 것이 들통이 나서 사흘이 멀다하고 불러냈어요.” 10년은 수좌로 살고 싶었는데, 참선 공부하러 왔는데 재를 올린다고 자꾸 불러내서 난감했다고 한다.

“처음에 선방에 가서 한 2, 3년은 오로지 정진에만 마음을 쏟았어요. 수좌 생활이 몸에 익혀지자 3년쯤 지나서는 해제에도 나오지 않고 선방에서만 지냈어요. 그때 혼자 고요한 산사에서 마당을 돌면서 그전에 배웠던 범패를 해봤어요. 그때서야 범패의 진수를 알았어요. 배울 때는 가락 외우느라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몇 년간 수행정진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인지 그 소리의 본래 경지가 느껴졌어요. 배운 소리를 해보니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천신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를 하다가 잠시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소리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엉망이 되니, 마음이 고요하고 일심이 되어야 소리가 되는 것이란다. 스님은 소리라는 것은 선정의 극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라고 덧붙였다.

13면에 계속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지상백고좌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불자라면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질 수 있어야”

12면에 이어

동주 원명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제일가는 어장인 송암 스님 문하에서 소리를 익혔다. 송암 스님은 열반하기 3일 전까지 강의를 하셨고, 제자들이 물으면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가르침을 주었다.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동주 원명 스님은 2013년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주석처인 홍원사에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을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주 원명 스님의 문하에서 경제어산 이수자인 문현 스님, 정오 스님, 현준 스님 등 여러 경제어산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배출되어 조계종단의 어산을 이끌어가고 있다.

조계종 어산 어장의 맥은 동주 원명 스님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5년 조계종 원로회의에 참석해 동주 원명 스님은 ‘1954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강원에는 강사, 선원에는 조실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만 어산의 어장 전통은 끊어졌다. 어장을 복원하자’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동주 원명 스님이 조계종 초대 어산 어장으로 추대됐다.

스님께 불교 대표 재의식인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의 설명을 구했다. 설행하는 것만을 봐서는 속인이 보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영산재는 죽은 자를 위한 재이고 49재입니다. 생전예수재는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재입니다. 이것도 사자(死者)를 위한 49재와 동일하게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수륙재(水陸齋)는 육지와 바다의 유주무주 고혼을 위해 지내는 의식입니다.”

스님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외로 초청받아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을 시연하셨다.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이기에 범패를 공연하면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때 내가 범패의 길을 가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다.

동주 스님은 죽은 이를 위한 재를 많이 올리다 보니 임종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 스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동주 원명 스님이 후학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2022년 홍원사에서 열린 경제어산 시연회.

“우리가 평소에는 말을 안 듣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 반응해서 듣죠. 우리는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은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뚱이 중에서 귀가 제일 늦게까지 의식이 남아있다고 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간에 저는 법문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주 원명 스님은 망자들에게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을 그 자리에서 전했다. 이 법문은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다.

“이 몸뚱이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해가 떴다가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꼭 믿으면 반드시 당신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간다. 왜 그런가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부처님이 약속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 염불왕생원(念佛往生願)이라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불국토에 태어나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염불하여 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원래는 평생동안 지극 정성으로 아미타불을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숨넘어갈 때만이라도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보살을 대동하고 와서 극락세계로 데려오겠다고 부처님이 약속했다.

“아미타불 염불을 당신이 지극히 부르면 대보살과 스물다섯 보살이 당신을 극락세계로 데려간다.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영접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먼저 아미타불을 해요. 임종 직전의 사람이 소리 내서 염불은 못하니 생각으로 따라서 부르라고 합니다.”

자비심 갖고 내 가족과 이웃 대해야
지혜 키우려면 ‘불교 경전 공부’부터
“지혜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아”

동주 원명 스님이 염불을 10분 정도 해주면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손발이 다 굳고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깨어난 분도 보았다고 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듣고 극락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진다.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됐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내 스님은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다.

“신라시대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32명의 스님들이 ‘만일염불회’를 결성해 염불수행을 했어요. 건봉사에 만일염불회를 연 32인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갔다는 것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만일 동안 부른다는 것, 1000일을 10번 곱하여야 1만일이 된다. 2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서방정토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총림이라고 하면 선원·강원·율원·염불원이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도사 한 군데만 염불원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옛 염불원에는 북과 광쇠가 갖추어져 있어 그걸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데 참 신명나지요.”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임종염불과 임종법문을 한다. 특히 임종을 앞둔 가족들에겐 숨넘어갈 때 울지 말고 조용히 아미타불 염불을 해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죽을 땐 잘 죽어야 합니다. 시끄럽게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울고 소리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마지막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니 좋은 곳에 가기 어렵지요.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좋은 곳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애착도 원한만큼 좋지 않습니다.”

동주 원명 스님은 팔순 노구이지만 새벽 종송을 하고, 새벽 예불을 올린다. 지금도 새벽에 600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팔순이신데 그렇게 절을 많이 하시면 무릎이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더니 “다리가 좋지 않긴 하지만, 수행자에겐 당연한 일”이라는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위해 불법(佛法)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문을 요청했다. 이내 스님의 법문이 곧바로 이어졌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신(迷信)이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희미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러면 될까 안될까 하고 저울질하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기도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금강경〉에 ‘여래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5번이나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면 소원성취가 될까요?”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데 불자들은 경전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자비심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지혜를 키우려면 경전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경전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살려준다고 해도 고마울 것이 없어요. 지혜로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달으면 우린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리를 일어나며 인사를 올리니 스님은 짧은 법문이자 당부로 화답했다. 스님이 설한 법문은 내겐 ‘금구(金口)’로 다가왔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행복해야 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행복해져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문윤정 / 작가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특별가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 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90만원~310만원
▶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 다질링,부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정 : 10월13일~22일(8박10일)
인도 다질링은 세계적인 홍차 산지로 히말라야 칸첸중가(8,586m)가 바라보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다질링으로부터 육로로 불교왕국인 부탄으로 가는 일정은 아름다운 다질링과 부탄을 순례하는 멋진 일정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다질링–부탄 팀푸–푸나카–파로–델리–인천
동참금 | 43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6일
중국 서안관광과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돈황석굴등 실크로드 코스에서 중요한 3대 석굴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13일~18일(5박6일)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양귀비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동참금 | 259만원

중국 육조단경의 혜능대사를 찾아서 5일
▶광주 육조 혜능대사의 수계 삭발처 광효사
▶혜능대사의 진신이 모셔진 조계산 남화선사
▶육조단경을 설하신 육조대사 설법도량 대감사
▶혜능대사가 사냥꾼들과 지냈던 사회현 육조사
▶육조 혜능대사의 탄생 및 입적도량인 국은사
출발일정 : 11월19일 ~23일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인천–광주–광효사–소관–남화사–대감사–운문선사–사회시 육조사–조경 칠성암 경구–신흥 국은사–광주–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⑱ 경주 남산 용장사지

▶한줄 요약
불국정토를 대표하는 경주 남산에서 꼭 참배하길 권하는 최고의 불교문화유산이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삼층석탑과 마애여래좌상 그리고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용장사지다.



독창미 넘치는 통일신라 석불·석탑

경주 남산을 대표하는 한 곳을 꼽으라면 세 가지 경이로움을 품은 '용장사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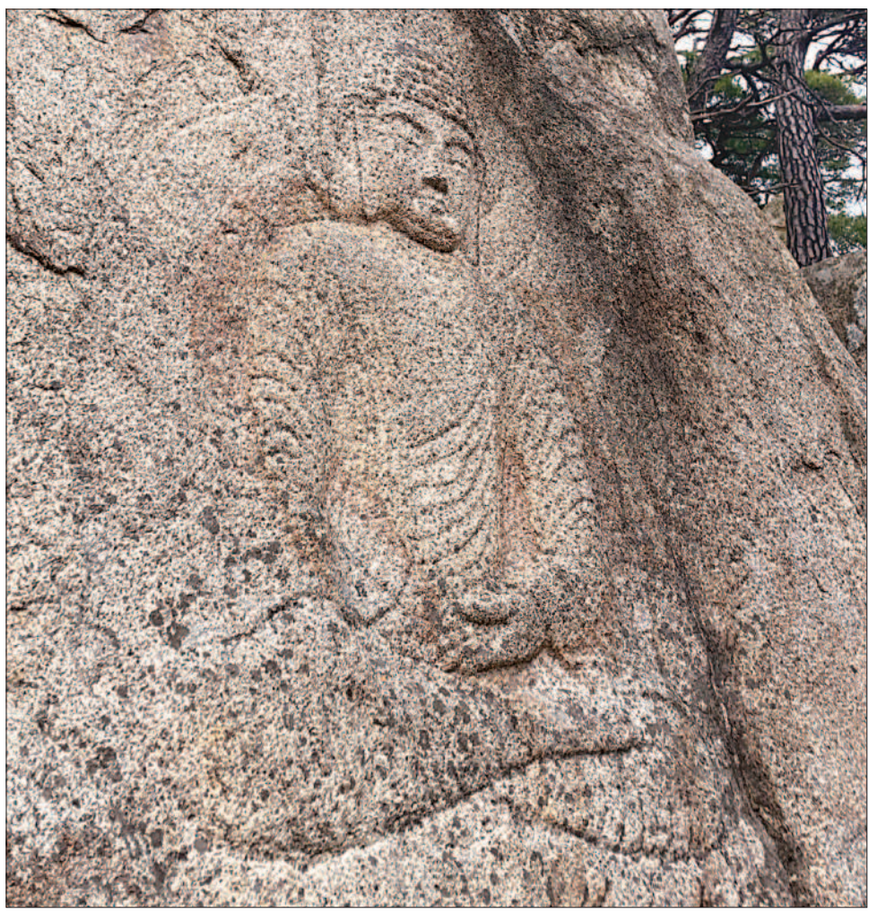
불국정토를 대표하는 경주 남산에서 꼭 참배하길 권하는 최고의 불교문화유산이 있다. 금오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삼층석탑과 마애여래좌상 그리고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용장사지다. 남산 등산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 용장사지에 온다면 탑과 불상과 풍경의 경이로움과 환희로움에 피곤이 사라질 것이다. 이곳을 참배한다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에 들어야 한다. 경주 남산 불국정토의 모든 기운이 가슴 안에 꽉 찰 것이다. 또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은 소원 하나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이 들것이다. 부처님 가피의 힘이 무량할 것이란 확신을 들게 하는, 남산이 받침 기단인 세계에서 가장 큰 삼층석탑과 듬직한 마애여래좌상과 경이로운 석조여래좌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소원성취를 이루고 싶은 불자는 용장사지 삼층석탑과 두 불상은 꼭 참배하길 바란다.

한국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멋진 석탑을 꼽으라면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가탑이 꼽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멋진 석탑을 꼽으라면 용장사지 삼층석탑을 꼽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석불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곳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을 꼽을 것이다. 산을 기단으로 중생계를 내려다보는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둥근 세 개의 단과 좌대 위에 연화 좌대가 있고 가사를 깔고 앉은 석조여래좌상은, 중국이나 일본 아니 그 어느 불교국가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 세계 유일한 석탑과 석불이다.

한국의 불교 유형문화유산 중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불교 문화유산은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조성된 독창적 문화유산 둘을 소개하자면 먼저 한국의 가장 독창적인 사리탑인 구례 지리산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이 있다. 네 마리 사자가 석탑을 받치고 중앙에는 불보살이 있으며 그 앞에는 공양인물상이 석등을 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8세기 중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사리탑이다. 다음으로 여래의 머리에 지권인을 한 화엄의 본존불상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200~300년은 앞서서 조성된 독창적 불상이다. 지권인을 한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은 신라인이 조성한 독창적 불상이다. 이처럼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불교 문화유산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용장사지로 가보자. 남산 정상 금오봉에서 용장사지 쪽으로 가다 보면 미끄럽고 조심을 요구하는 내리막길이 나온다. 조심조심 온몸을 산에 기대며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나 다들 감탄의 외침을 하게 된다. 남산을 기단으로 저 밑 중생계를 굽어 살피는 웅장한 삼층석탑이 모두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높이 4.5m로 해발 400m의 금오산 정상 부근에 세워져 있다. 8~9세기 중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1922년에 무너져 방치된 것을, 지금의 원래 자리에 복원하였다. 이후 도굴 시도로 2001년 상층의 기단이 피해를 보아 해체하여 보수하였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도면을 보면 2층 몸돌 윗면에 길이 15.2cm, 깊이 13.1cm의 방형 사리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오봉 내려가면 세상 굽어보는 석탑 만나
남산을 기단으로 만든 삼층석탑 위용 '감동'
매번 절을 올리며 '불도를 이루리라' 기원
석탑 옆 계단 따라가면 만나는 마애여래상
힘 있는 부처님 얼굴, 근엄한 자태에 숙연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경주 남산에서 만날 수 있는 독창미가 넘치는 불상들이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은 경주 남산 전체를 기단으로 서 있는 석탑으로 일명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 불린다. 기단을 산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다. 신라의 석탑은 삼층석탑이 대표하는데 각 층의 탑신인 몸돌 밑 기단은 보통 이중 기단의 형식을 취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의 1층 기단은 경주 남산을 기단으로 서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불리는 것이다. 참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곳에 어떻게 이런 웅장한 석탑을 조성했을까'하는 놀라움이 든다. 주위에 있는 바위를 다듬어서 조성하였을 것인데, 남산 정상에서 생활하며 석탑을 조성한 석공은 그 정성으로 정토에 가는 수기를 미륵부처님께 받았을 것이다. 나는 올 때마다 석탑 기단 바위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륵부처님께 기원을 올린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다음으로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높이가 1.6m 정도이며 용장사곡 삼층석탑 옆으로 난 데크 계단을 내려오면 오른쪽 옆 바위의 뒤쪽에 새겨져 있다. 부처님 두상의 나발이 남산의 다른 불상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옷은 두 어깨를 감싼 통견의 양식을 취하고 있고 연화 좌대 위에 앉아 있다. 용장골을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은 턱에 군살의 주름을 표시했고, 전반적으로 둥그스름해 풍만한 분위기를 보인다. 꽉 다문 입술과 큰 코, 힘 있는 얼굴에서 근엄한 분위기가 풍긴다.

옷 주름이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륜 석조여래좌상보다는 조성 시기가 뒤로 가는 9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어깨 옆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太平二年八月…'로 확인되었다. 태평 2년은 중국 송나라 태종의 연호로 보면 977년이 되고, 요나라 성종의 연호인 태평이면 1022년이 된다. 다른 명문은 너무 닳아 있어서 판독하지 못하여 연도가 명확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통일신라시대 8~9세기 조성된 용장사지의 불상에 고려 초기 명문이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의 양식은 고려 초기의 양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장사지의 삼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은 분명 8~9세기 조성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명문에 태평 2년이 새겨진 것일까?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구층석탑의 명문을 보면서 이러한 해석을 해본다.

월악산 송계계곡 길을 쭉 올라가면 사자빈신사지의 사사자구층석탑이 있다. 이 탑의 기단에는 고려 월악산 사자빈신사에 원적(怨敵)인 요나라가 사라지길 기원하며 태평 2년 4월에 석탑을 조성하여 기록한다는 명문이 있다. 고려 현종과 강감찬은 1019년 귀주에서 요나라의 대군을 물리친다. 고려가 명운을 걸고 싸운 여요전쟁(麗遼戰爭)을 마무리하는 승리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렇기에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이 원적을 물리치길 기원하며 조성한 것처럼, 1022년 사자빈신사에 구층의 석탑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1022년 경주 남산 불국정토의 최고 사찰인 용장사의 마애여래좌상에도 이와 같은 기원의 명문을 새긴 것은 아닐까 싶다. 비약이 심한 이야기지만, 문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옛 유적의 해석은 개인의 몫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은 마애여래좌상에서 고개를 돌리면 서 있다. 석불좌상의 총 높이는 3.4m로 대좌는 2m이고 불상은 1.4m이다. 석조여래좌상의 세 개의 둥근 연화문 좌대와 둥근 받침은 유례가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불두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대 발견 당시 사진에는 이미 불두는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쓰러져 있던 불상과 삼륜 좌대를 세웠으나 다시 무너져서 1932년 무렵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삼국유사〉에 용장사의 대현이 미륵불을 돌면서 수행했다는 이야기에서 불상은 미륵불상으로 보인다. 또한 도상을 분석하여 '승형석불상'이나 '보살형미륵상'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유가종(瑜伽宗)의 개조 대현대덕은 남산의 용장사에 살고 있었다. 그 절에는 미륵불의 석조 장륙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늘 불상의 주위를 돌면 불상도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삼국유사〉 中

옷 주름이 사실적으로 조각된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에는 한국 석불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에서 보이는 것 같은 매듭 장식의 술이 무릎에 늘어뜨려 있다. 가사는 사각의 천을 왼쪽 어깨에 고정해 두르게 되어 있다.

현대의 한국스님들의 가사는 왼쪽 어깨 부분에 고리가 있어 끼우게 되어 있는데, 용장곡과 삼릉곡 불상의 가사는 매듭을 지어서 고정하고 늘어뜨린 끝에는 술로 마감을 한 모습이다. 여기에서만 보이는 참으로 고급스러운 가사의 고정장치다.

두 번째는 삼륜의 기단이다. 커다란 바위 받침 기단 위에 복련의 좌대 같은 다듬은 문양을 새겨놓고, 그 위에 고복형 석등의 둥근 북 같은 기단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1단의 좌대와 다시 북 모양의 기단과 좌대와 기단 그리고 앙련의 연꽃 문양이 선명한 좌대가 올려져 있다.

세 번째로 삼륜 기단과 좌대 위에는 삼단 문양의 앙련의 연꽃 좌대가 올려져 있는데, 삼단의 연화 좌대에 가사를 깔고 불상이 모셔져 있다. 아주 독특한 삼륜의 좌대와 그 위에 가사를 깔고 있는 삼단의 연화 좌대 위에 미륵불상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불상의 앞에서만 본다면 가사 좌대만 보여 알 수 없다. 불상의 옆에서 보면 앞쪽에는 가사가 늘어져 있고 뒤에는 삼단의 연꽃 좌대를 볼 수 있다. 꼭 옆으로 가서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불상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라만의 불상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9호 | 15 | 전면광고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강원도 삼척시
- 대지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시장과 지하철 입구 인접
- 마당있는 단독주택 방 3개(거실 법당)
- 보증금 : 1000만원/월세 80만원

스님 이민 관계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법당 법구 일체,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보시하고 갑니다

010-5399-122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나소로 458
- 절도량 600평, 바로 뒷산 5400평 총6000평
- 절도량 농막주택
- 현재 법회 운영 중
- 시설비 포함 총 2억9000만원
- 마을 5분 시내25분 거리
- 상담 답사 후 결정

선착순 010-3521-54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4억6천

010-5204-8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5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000만원 끼고 6억원

010-6898-9114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1억 9000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확 낮춰서 올립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림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부처님 원불 인등 산신 용왕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시설비(상호 합의)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010-3906-37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2필지)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4개) 주차장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 가능)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010-5022-2187
010-5333-890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9호 | 16 | 전면광고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람을 찾습니다

속명 : 지영숙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성장. 임덕점 모친 소개로 부산 저희집에서 일도 같이 하면서 살았음. 지금은 출가를 하였다고 들음.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010-5436-580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추석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통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세상을 바꾸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㊼ 영화 〈60만번의 트라이〉와 고시엔



영화 〈60만번의 트라이〉의 한 장면. 일본의 '자이니치', 재일동포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룬다.

'공포의 외인구단'은 이현세 만화가 작품의 제목이었다. 한국만화명작 100선 가운데 1위인 이 만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매력과 그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서사가 주는 희망과 감동은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됐다. 이제는 주류도 아니고, 잘 나지도 못했고, 금수저 아니라 보통 수저도 타고 나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 야구 하나로 꿈을 이룬다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현상을 일컫는다.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차별과 소외를 딛고 최고에 오르는 것은 워낙 기적 같은 일이라서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8월 일본에서, 그것도 야구 만화에서 늘 '꿈의 구장'으로 등장하던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무대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는 노랫말 교가가, 그것도 순 한국어 그대로 일본에서 야구장에서 울려 퍼졌다. 국제대회도 아니고, 한일 친선 경기도 아니고, 그냥 그 유명한 일본 고등학교 전국 야구 대회인 고시엔 대회에서는 우승팀 교가를 연주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우승팀 이름은 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는 중학교, 고교생을 다 해서 학생 수가 160명 정도의 작은 학교다. 재일한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해방 직후인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1945년 8.15 당시 일본에는 200만 명이 넘는 동포가 일상적인 박해와 민족 차별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 이들이 귀국하는 문제에 대해서 패전국인 일본 정부나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총사령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었다. 1인당 1000원 이상을 갖고 나갈 수 없는 가혹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집도 절도 없는 고국으로 귀환할 엄두를 못내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될 무렵까지도 60만여 명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러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남한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들은 국적이 여전히 '조선'인 상태로 발이 묶였다. 교토조선중학교는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1961년부터는 교토한국중학교, 1965년에 한국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해오다가 2003년, 교토국제고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학교 인가를 받고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재적 학생의 65%는 일본인이고 한국계 학생은 30%가량이니 명실상부한 국제고가 맞다.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 학교에서 정식 학교가 되기까지 여러 세대를 이어오는 동안 재일조선인 국적의 1세대는 세상을 떠났고, 저출생 기조에서 인구가 줄면서 재일조선인의 수도 줄었으나 여전히 민족 교육을 하는 터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국제고로의 전환과 더불어 야구부 창단은 좋은 선택이었다.

> **재일한국계 학교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감동'**
> **열악한 환경에도 쾌거…스포츠 통해 '꿈' 이뤄**
> **'60만번의 트라이'도 오사카 조고 실화 담아내**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이어나가기 위해 1999년에 야구부를 창단했으나 처음에는 야구부 성적이 형편없다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야구부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2020년대에만 세 번의 고시엔 진출에, 4강 진출 한 차례에 이어 올해는 우승까지 차지한 신흥 야구 명문고가 된 것이다. 야구를 하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이제는 교토국제고 전교생 160여 명 가운데 무려 60명가량이 야구부란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사와 SNS 포스팅이 쏟아졌고 한일 문제로 늘 다투던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식적으로 축하를 전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교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축하를 보탰다.

여기까지 정말 재일조선인들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이 담긴 영화 가운데 박사유, 박돈사 감독이 만든 오사카 조고 럭비부 소년들을 통해 60만 재일조선인을 돌아보는 〈60만 번의 트라이〉도 있다.

'트라이'는 럭비 용어다. 노력하다, 해보다, 시도하다, 하려고 하다라는 영어 기본 단어 말고, 그냥 그 용어 그대로의 상대편의 인골(ingoal) 안에 공을 찍는 일을 일컫는 스포츠 용어. 트라이가 성공하면 4점을 득점하고, 덤으로 골킥을 해서 추가득점을 할 권리를 얻는다.

그 트라이를 60만 번이나 한다는 〈60만 번의 트라이〉 라니! 럭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종목이다. 그 비인기종목인 럭비를 하겠다고 일본에서, 그것도 지방도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 3세들이 뛰고 구르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그런데 왜 60만 번이냐고?

'자이니치(在日)'의 숫자가 60만 명이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귀화하면 더 이상 핍박받는 일이 없어지는 대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남쪽을 선택하면 말과 글을 배우기 힘들어 뿌리를 잊게 된다. 북쪽을 선택하면 전 세계에서 고립된 이방인이 된다. 어디를 선택하든 다른 반쪽을 포기해야 한다. 가령 부모 가운데 하나는 남쪽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 출신이라면? 그러니 그냥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치(在日)'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60만 번의 트라이〉 그 60만 조선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뜨거운 응원가다. 어느 하나를 얻고자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뛰고, 웃고, 서로를 믿는 가운데 어른들이 닫아건 빗장을 아이들이 열어가는 세상을 보여준다. 학부모, 선생님뿐 아니라 오사카 조고 아이들은 시합 중에는 편이 갈리지만 끝나면 '네 편 내 편'이라는 사이드가 없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럭비의 '노사이드 정신'으로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렇게 일본 학교 아이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럭비 한마당에서 한일관계와 남북분단 현실이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이 보인다.

〈60만 번의 트라이〉의 럭비 선생님은 '스포츠가 사회를 바꾸게 하라'고 한다.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은 '공포의 외인구단'이 사회를 바꾸고 있는 기적 같은 현실이다.

지난해, 조계종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일본 도쿄 및 교토 일대를 돌며 '간토학살100주기 추도 및 재일조선인 역사문화순례'를 진행했다. 이때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지금도 살고 있는 마이즈루만과 우토로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고 피해와 가해의 역사가 뒤섞인 '요코아미초 공원'부터, 일본 시민들 주도로 해마다 치러지는 '간토학살 추도행사', 마이즈루 '순난의 비' 등을 두루 돌아보고서 우리가 할 일이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교류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기억을 안겨주자"라는 깨달음을 나누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과 한국어 교가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한국에 살고 있는 숱한 이주민 이웃들이 방송에서 유창하게 한국말 하는 모습도 좋지만 자신들의 언어, 부모 나라의 언어로도 우리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교류를 통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기억'이리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㉟

1.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였다.
②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른다.
③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 이후 삼보(三寶)가 갖추어졌다.
④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의 내용은 중도(中道)와 사성제(四聖諦)이다.
⑤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은 당시 지방 장자의 아들 야사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루어졌다.

해설 : 부처님께선 녹야원에서 최초의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설법의 내용은 중도와 사성제이고 이 설법을 들은 이들은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할 때 옆에 머물다가 떠나간 다섯 명의 수행자이다. 이들은 이 설법을 듣고 최초의 승려가 되었으며, 이 때 부처님(불), 가르침(법), 승가(승)의 삼보가 갖추어 졌다. 야사와 그의 친구들은 초전법륜 이후의 설법을 들었다.

2. 다음 중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삼보(三寶)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불보, 법보, 승보 ② 경장, 율장, 논장 ③ 계율, 선정, 지혜
④ 불상, 법고, 범종 ⑤ 삼법인, 사성제, 8정도

해설 : 삼보란 불교를 이루는 세 가지 보배라는 뜻으로 불보(부처님), 법보(가르침), 승보(승가)를 가리킨다. 경, 율, 논은 불교경전의 세 가지 요소(삼장)이고, 계, 정, 혜는 배움의 삼 요소(삼학)이다. ④, ⑤는 불교예술 및 불교교리에서 임의로 세 가지를 뽑은 것이다.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다.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a)와/과 (b)을/를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마라. 그래서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이 법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 법을 선포하라. 청정한 삶을, 완전하고 순결한 이 성스러운 삶을 선포하라. 세상에는 눈이 과히 흐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법을 듣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마저 바른 길에 들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법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루웰라의 세나 마을로 가서 법을 가르치겠노라.

① a : 행복 - b : 극락 ② a : 이익 - b : 안락 ③ a : 열반 - b : 해탈
④ a : 이익 - b : 깨달음 ⑤ a : 평화 - b : 사랑

해설 :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 이후 야사와 그의 친구들 50여 명에게 법을 설하시어 본인을 포함한 총 60인의 아라한이 탄생했을 때,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라 선언하셨다. 이를 전도선언이라 하며, 내용은 위와 같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라 하신 까닭은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이다.

4. 부처님의 전도선언으로 틀린 것은?

①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떠날 것
②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법을 전할 것
③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줄 것
④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할 것
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할 것

해설 : 전도선언의 내용은 위의 문제를 참조. 부처님께서는 법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멀리 하라고 하셨다. 이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다. 부처님 본인께서도 혼자 우루웰라의 세나마을로 가셨다.

5. 부처님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설법했을 때, 그 타고 있는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탐욕의 불 ② 분노의 불 ③ 고뇌의 불 ④ 승리의 불 ⑤ 어리석음의 불

해설 : 전도선언 이후 부처님께서는 우루웰라의 가섭 삼형제를 불교로 귀의 시키셨다. 이 가섭 삼형제는 불을 신성시하고 신앙하는 사문들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탐욕, 분노, 고뇌, 어리석음으로 비유하시어 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부처님 법으로 조복시키셨다. 참조로 부처님께서 불이 익숙한 가섭 삼형제에게 불의 비유로 가르치셨듯이 듣는 사람의 수준과 근기를 감안하시어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을 대기설법이라고도 한다.

정답 : 1. ③ 2. ① 3. ② 4. ④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가격 ₩ 79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⑱ 숫타니파타 ①



▶한줄 요약
〈숫타니파타〉는 〈법구경〉보다는 한국인에게 덜 친숙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시구를 집대성한 성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불교 경전이다. 인생이라는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은 경전이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붓다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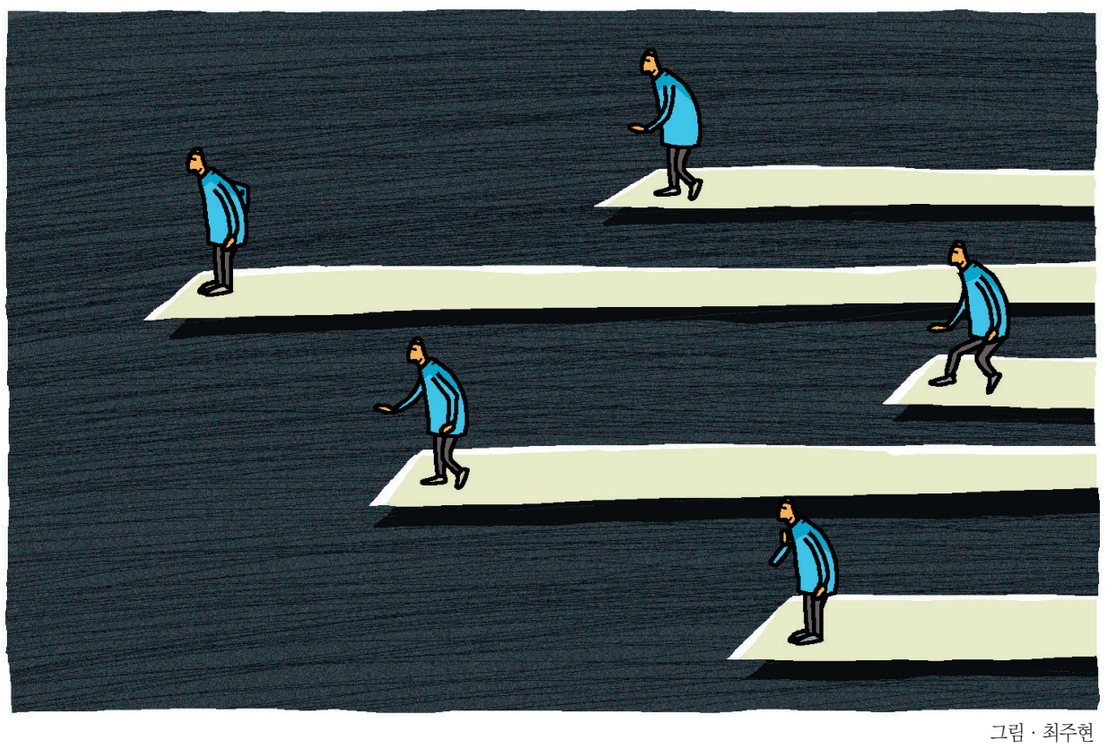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초기불교 향취 듬뿍 담아낸 '最古' 경전
온전하게 한문 번역되지 않아 덜 친숙해
"佛說 가장 가까운 시구 집대성한 성전"
속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침반 역할

조금 낯설지만 매우 특별한 경

오래되었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 수명이 길다는 점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일 테니까요. 와인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푹 무르익는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 깊은 향기를 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교경전들은 대체로 오래되었습니다. 경전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200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지요.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은 〈숫타니파타〉입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숫타니파타〉는 초기경전인 니까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종류 니까야 가운데 〈쿳다카 니까야〉 속에 들어 있지요. 일본의 남전대장경에서는 〈쿳다카 니까야〉를 소부경전(小部經典)이라 부릅니다. 따로 독립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경전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타니파타〉와 비슷한 경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법구경(담마빠다)〉입니다. 제가 〈법구경〉 앞에 '그 이름도 유명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구경〉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매우 친숙한데 〈숫타니파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법구경〉은 중국으로 전해져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대체로 중국으로부터 경전을 입수한 우리나라는 한문 〈법구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숫타니파타〉는 온전하게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 없고, 일부분만이 '의족경(義足經)'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아시아 불자들에게 〈숫타니파타〉는 그 이름 자체가 낯선 경이 되었고, 〈법구경(담마빠다)〉보다는 덜 사랑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학자들은 〈숫타니파타〉가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구경〉보다 가치 있는 초기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구경〉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전재성, 〈숫타니파타〉 해제에서)

"아쇼카 왕의 비문에는 이 〈숫타니파타〉 속에 들어 있는 경 가운데 세 개를 인용하고 있다."(전재성, 일아 스님)

"〈숫따니빠따〉는 전체 빠알리 삼장 중에서 그 성립연대가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중략) 이 경전을 읽으면 마치 승원이 존재하기도 전, 아주 초창기 출가자의 삶을 보는 것 같다."(일아, 〈숫따니빠따〉 머리말)

"불교의 많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고, 역사적 인물로서 고따마 붓다(석존)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시구를 집성한 성전이다."(구모이 쇼젠, 〈붓다와의 대화, 초기불경 숫타니파타를 읽다〉 37쪽 재인용)

어느 해설서를 보더라도 〈숫타니파타〉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초기불교의 분위기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간소한 가르침 속에서 진지한 구도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초기경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라고 묻는 입문자들에게 〈숫타니파타〉를 천천히 읽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하는 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 글귀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작가 공지영이 1993년에 쓴 소설 제목입니다. 내용은 대학 동창인 세 여성이 인생의 파란을 견디면서 좌초하거나 꿋꿋하게 서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당시 베스트셀러였고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목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자는 "홀로 서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빗대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정했지만 출판사에서는 난색을 표했고, 당시 신인 작가 공지영의 고집으로 이 제목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위키백과에서 인용).

이 제목이 바로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는 '무소의 뿔의 경'에 담긴 41개의 시 마지막 구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목, 멋지지 않나요?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벗의 존재는 절실하지만 참다운 벗을 구하지 못하면 그대 혼자서 가라는 것이지요. 눈치도 보지 말고 주눅도 들지 말고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도 말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이 나의 길이라 생각한다면 혼자서라도 걸어가라는 가르침!

저녁 강의를 마치고 지치고 허허로운 감정으로 귀가하는 길에 어둑한 도로, 차창에 비친 추레한 내 모습을 보면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회의가 슬금슬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가슴 속 저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드는 구절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숫타니파타〉의 구절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고독한 수행자를 격려하는 시구(詩句)이지만 이 구절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지치고 외롭고 두려워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숫타니파타〉는 출가 수행하는 구도자의 삶에 중점이 놓여 있지만 인생이라는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입니다.

힙합에만 배틀이 있는 건 아니다

배틀(Battle)이란 말, 싸움, 전투, 다툼의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힙합에서의 배틀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청바지를 느슨하게 입은 젊은이들이 양편으로 갈라서서 상대방에게 도전합니다. 슬그머니 상대방 화를 돋우어 싸움을 거는데, 상대방보다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량과 기술, 예술적 가치를 한껏 뽐냅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디스(Disrespect 줄임말)'는 거칠어 보이고 매우 불쾌하게도 느껴지지만 그걸 아주 세련되게 받아서 더 멋진 모습으로 되받아칩니다. 전혀 동떨어진 노래나 춤이 아닌, 배틀의 라이벌과 라임을 맞추며 한결 멋진 가사를 춤과 선율에 실어냅니다. 두 팀은 라이벌이지만 한 무리의 멋진 힙합전사들로 관객의 박수를 끌어내지요.

좀 엉뚱하다 싶지만 〈숫타니파타〉를 읽을 때면 이 힙합 배틀이 떠오릅니다. 〈숫타니파타〉 앞부분에 등장하는 '다니야의 경'에서 도드라집니다.

다니야라는 목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양치기 정도의 가난한 젊은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숫타니파타 주석서에 따르면, 다니야는 3만 마리의 황소를 지녔고, 2만 7천 마리의 소에서 젖을 짜며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산업자라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소가 재산의 척도였을 터, 그의 자부심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로 이런 다니야가 부처님과 게송 배틀을 합니다. 부처님? 소가 몇 마리나 있을 것이며, 출가하셨으니 아들딸이나 하인은 몇 명이나 거느렸을까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부처님과 어마어마한 부를 지닌 축산업자의 배틀입니다.

먼저 다니야가 노래합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부처님의 답가는 이렇습니다.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다니야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완벽하게 챙겼으니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도 아무 걱정이 없다고 노래했고, 부처님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강변에서 지내면서 닫아걸 문도 없고 비가 와서 행여 꺼질세라 염려할 불도 없으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다니야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 운을 받아서 부처님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여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웃음이 터집니다. 다니야는 순종적인 아내가 잘 길들었으니 그게 아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출가한 까닭에 아내가 없는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잘 길들어서 마음 속에 악이 사라져서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에게서 내 삶의 기준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내 삶의 기준을 두겠습니까? 다니야와 부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행 스님

그저 늠름하고 태연하게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 공부를 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던 겁니다. 한 손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만 하면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 가선 이렇게 옭아. 옭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은 그렇게 해서 옭아 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땔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또는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자의 대덕 스님네들의 말씀을 응용한다면, 예전에 덕산 스님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설봉 스님은 제자로서 공양주를 하셨고, 암두 스님은 대중을 이끄는 분이었고 또 덕산 스님은 조실로서 계셨는데 아, 사시 마지가 지나도 종을 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을 울리지 않고 하니 바리때를 들고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덕산 스님은 바리때를 들고서 오온의 법계를 위로나 아래로나,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같이 공양하고 그릇을 비워 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무슨 소릴 질렀느냐 하면은, "늙은이가 종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어슬렁거리느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오고 가는 그 그림자만 보고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설봉 스님은 또 암두 스님한테 "저 늙은이가, 그렇게 악을 쓰니깐,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니까, 빽! 악을 쓰면서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아,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그 늙은이가 말후구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랬으니 얼마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눈이 멀고 한쪽에서는 귀가 뜨이지 않았어. 그 소릴 듣고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지, 지혜가 있다면. 귀는 뜨였으나 귀가 뜨이지 못했어. 눈은 떴으나 눈이 뜨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화두 삼아서, 사구를 화두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은 방편으로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래도 효자가 그것을 함정에 빠진 걸 건졌다고 했으니 이거는 대덕을 너무나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건지고 농락을 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농락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는 예전에 대덕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네가 덕산 스님이라면 설봉이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 요거 한 가지를 일러 봐라." 이렇게 했을 게고, 또 한 가지는 "암두 스님이 말후구를 몰랐구나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를 일러 봐라." 했을 거고, 그게 천칠백 공안에 다 들어 있다 이 소리겠죠. 그거는 의당히 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천칠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화두고, 모두가 공안 아닌 게 없는데 말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천지를 말하고, 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는 이 자체를 보고 칠백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뜻을 보고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도 삼혼 칠백이라고 그러죠, 죽었을 때도.

그건 그렇고, 또 "암두 스님 들어오라고 해라. 이놈이 그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와서는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하니까는, 그냥 끄덕거리고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건 또 뭐며, 또 그 이튿날 설법하시는데 예전보다도 더 쩡쩡하게 설법을 하시고선 "삼 년만 있으면 내가 죽노라." 했다니 그 삼 년은 어디에다 둔 말씀이냐, 이걸 일러라.

이래서 우리가 천칠백 공안 속에 들어 있는 이 자체를 다 '말 없이 이를 수도 있고,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 공안의 이치를 알라'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인데, 아,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데도 또 암두 스님은 "야! 우리 스님이 이제는 말후구를 알았구나!" 그러고선 손바닥을 쳤다니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벌써 서른 안짝에 들은 소립니다마는 참, 이 모두가 생각을 어떻게….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 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허허,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맛이 날 수도 있는가 하면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 가지곤 아니 돼. 이 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야,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이 많아도 말 한마디도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무시무시하게끔 땅속이나 물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 나게 하고 말이야, 괜히 차분한 사람을 그냥 신경질 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그냥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서야 어찌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 19면에서 계속

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거야,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놈이니까.' 하고선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놈밖에 없어. 그 한 놈도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놈도 한 놈이란 말을 못 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야.

그러니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내가 가난을 면하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자손들을 잘 두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젊은이들 중 아직 어린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릴 잘 듣고 잘 해야 돼. 낳기만 하면 자식인가? 자식이 아니지. 인과업으로 인해서 원수로 만났다면 질그렁질그렁, 만날 화목지 못하고 이거는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가 나고 복장을 쳐야 옳으니 말이야.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한두 건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집에 불구가 셋씩, 넷씩 되는 집도 있어요. 다섯 식구가 사는데 한 사람만 남겨 놓고 불치의 병을 넷이 다 앓고 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어떠한 공직에서도 도대체 승진이 되질 않아,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공부 하는 데는 스님네가 따로 없고 속인이 따로 없고, 여자가 따로 없고 남자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어.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지만 속에 중생들이 운행을 해 줘야 부처가 있지. 자기 부처를 자기가 형성시켰으니 자기는 운행을 해 줘야만이 그 부처가 자기와 더불어 같이 벗어날 수 있으니깐 말이야.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별성일 수도 있고 혹성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어. 한시도 몸뚱이는 쉬지 않고, 배는 쉬어 놓고도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밤이면은 기껏 돌아다니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또 움죽거리고.

그러니까 자나 깨나 숨을 쉬고 있으니 시공이 없이 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는 과거로 지나간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깨친다면 부처님의 그 높은 뜻은 내 몸을 갈아서, 정말이지 내 몸을 갈아서 실을 꼬아 짚신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바쳐도 거기에 다 못 미칩니다. 허나 그것을 거름 삼아서 내가 만약에 깨친다면 그 부처님과 진짜 둘이 아니요, 진짜 선배 후배가 아닌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만 가지 골짜기에서 한 강으로 물줄기가 다 흘러드는데, 똥물이든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다 모여서 여여하게 마다하지 않고 흐르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와 용은 그저 들락날락 자유스럽게 놀고 있더라. 그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한번 일러 보시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들락거리고 자유스러운 그 용은 오백 비구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석존마저 죽였노라. 이것은 또 무슨 연고냐? 대답해 보실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예전엔 천칠백 공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많았죠. 어느 스님께서 조용히 산등성이의 돌 위에 가서 떠억 앉아 있으려니까 어느 노승이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 앉을 때가 옳은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옳은가?"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앉고 서고 그런 게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하니까 "허허, 그래! 그러면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물렀겠지?" 하거든.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익었겠지."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경이라는 경은 다 봐도 그런 문구가 없어. 그 스님을 찾으려고, 경을 다 버리고 찾으려고 애써도 이름도 성도 묻지 않은 것도 실책이고, 그 스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동짓날이 됐더랍니다. 동지가 됐는데 마당에다 큰 솥을 걸어 놓고선 팥죽을 쑤고 있거든. 팥죽을 쑤면서 큰 주걱으로다가 휘휘 젓거든. 그런데 그 팥죽이 벌렁벌렁 끓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아이구,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스님! 찾았습니다, 스님!" 이랬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소리를, 그 대답을 못 한 스님이나 그 말씀을 하고 간 스님이나 둘이겠습니까? 무슨 까닭에 그걸 보고서 (손바닥으로 법상을 쳐 보이시면서) "아이구, 찾았군!" 했는가 말입니다. 그 팥죽 끓는 걸 보고서 그 솥 안의 돌이 말랑말랑한 걸 알았겠느냐 이 소립니다.

천칠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어느 것이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응아" 하고 나왔으면 그게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화두입니다. 어느 어린애든지 나올 때 "응아" 하고 소리 안 지르고 나오는 애가 없어. 그리고 물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애가 없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야! 그럼 갈아야지! 그게 화두라. 내가 난 게 화두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생활하는 것이 참선이야.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참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는 게 참선이야,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니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더라.

여러분은 나더러 '스님은 경전에 있는 심오한 뜻은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만날 저런 얘기만 할까?'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솥 안에 넣고 그 솥 안의 자갈은 말랑말랑하게 익었겠지?" 한 거는 뭐며 팥죽을 쑤는 걸 보고선 (법상을 치시며) "아이쿠, 이제는 익었구나!", 돌이 익었다 이거야, 돌이 그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은 살려 놓고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을 살려 놓고 미지의 저승 세계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길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고서야 산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행할 수 있고, 똑바로 자비를 베풀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모르고서야 어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며, 길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는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밥은 내가 대신 먹어 줄 수 없지만, 그 밥을 먹게끔 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자기가 해 먹어 봐야 해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해 먹을 수 있는 물리를 틔워 주게끔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내 줄 수 있는, 하나가 돼 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광력 전력 자력, 이런 게 다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고 그만 그치겠습니다. 산 사람 앞에서는 절을 한 번을 하고요, 죽은 사람 앞에는 두 번을 하고 부처님한테는 세 번을, 삼배를 올립니다.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자기란 놈이 일할 때마다 착착 나와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돼. 그렇기 때문에 행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로.

> 만 가지 골짜기에서 한 강으로 물줄기가 다 흘러드는데,
> 똥물이든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 다 모여서 여여하게 마다하지 않고 흐르더라.
> 거기에서 고기와 용은 그저 들락날락 자유스럽게 놀고 있더라.

어느 시골 선비가 대원군한테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는 꼭 뭐나 할까 하고 간 거는 아니에요. 가서 며칠을 기다려서 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말입니다, 본척만척한단 말입니다. 절을 하는 걸 봐야 될 텐데 본척만척하고 본 둥 만 둥 했거든. 그래서 또 한 번 했지요. 아, 그랬더니 그냥 야단법석이 난 겁니다. "저놈이 산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한테 하듯이 절을 두 번씩이나 했다. 저놈 잡아 족치라." 하니까 "어이휴!" 그 시골 선비가 웃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이 소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좀 늠름하고, 지혜 있고, 좀 더 인내가 있고 탄평해야 돼요. 아주 복잡다단하면 안 되죠, 느긋하고. "아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도 바쁘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절을 하고 또 재차 절을 한 까닭은 앞서는 들어온 절이고 이건 나갈 절인데, 헤헤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원군이 가만히 생각하니 냅다 그냥 맞았단 말입니다. 한 방 얻어걸렸단 말이야. "아, 그렇게 급하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나랏일을 하십니까?" 했거든, 시골 선비가. 그러면서 싱그레 웃고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대원군이 한 대 얻어맞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하인더러 "저 사람 불러들여라." 불러들였거든, 허허허.

"너 이놈! 내가 번연히 다 아는데, 내가 보지 않았을까 하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한 거는 분명한데, 네놈이 너무 침착하고 대담한 걸로 봐서 한 번 할 놈이야. 그러니 원으로 가서 자비를 베풀면서 앞으로 군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대장을 해라." 했답니다. 그래서 절 두 번 하고 참, 보지 않았는데도 그만했으면 그대로 그만이지만, 두 번을 했어도 두 번 했다는 걸 그렇게 변명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거 늠름하게 그렇게 대번에 그런 대답 못 합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나옵니까, 여간한 사람 쳐 놓고는. 그러니 얼마나 그 지혜가 풍부하고 참 늠름합니까, 아무리 시골 선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하여튼 모습으로 태어난 거는 태어났으니깐 그 모습 그대로 행은 하지마는, 좀 더 늠름하게… 아, 마음이야 뭐 여자 남자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모습은 여자 남자가 있을지언정. 그러니 그저 늠름하게 태연하게 아주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랄 것도 없지만. 아뇨, 공부라고 하기는 오히려 참 보잘것없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르는 데 조금도 쉬지 않고,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 형상도 나하고 둘이 아니요, 마음도 나하고 둘이 아니요.' 하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어디를 가서 책을 보더라도 '어떤 놈이 이 책을 보는가?' '주인공아!' 불러 놓고 경을 보되 '네가 보는구나!' 하고선 보라고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승에 가기 전에 그냥 가는 도중에 그런다면 저승엔 못 들어가요.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 마음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8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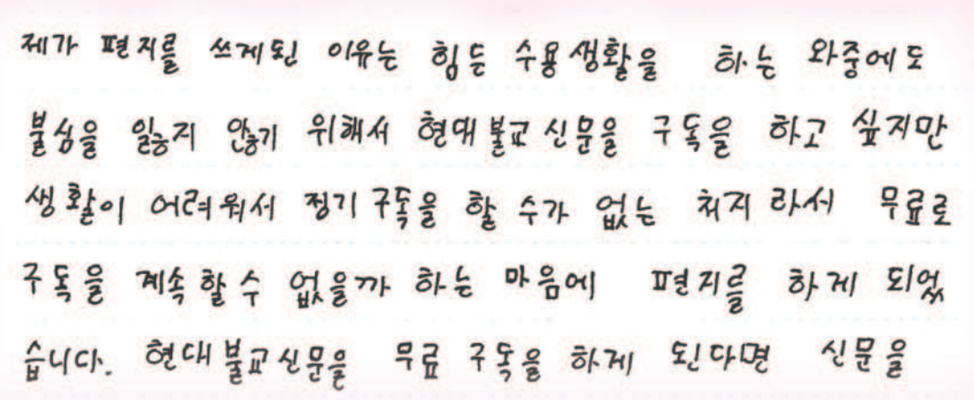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㉓ 뱀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자비 가르친 부처님

잔인함 부르는 불안, 자비가 '명약'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한다. 기존에 있던 감정 캐릭터를 내쫓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것은 주황머리 '불안(anxiety)'이다. '불안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만약에 일어날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주인공이 최선을 다하도록 모든 일을 지시한다. 그러다 주인공은 결국 생각 때문에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기쁨' '슬픔' '버럭' '까칠' 등 감정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오직 불안이가 만든 목소리 "나는 부족해(I'm not good enough)"라는 자책 속에서 공황장애처럼 숨을 못 쉬고 심하게 몸을 떠는 신체 반응을 보인다.

이 영화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떻게 사람의 신념과 행동을 조종하는지 보여준다. 인간의 DNA에는 사실 기쁨(joy)보다는 불안이 더 강하게 심겨 있다. 맹수와 지진, 태풍, 굶주림 등 생존을 위협하는 미지의 위험을 대비하도록 설계된 인류의 유전은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불안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사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고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이끄는 필수 감정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잉 반응이 문제다. 과도한 면역 기능이 면역 질환이 되듯 위협을 살피도록 돕는 경고 반응 불안이 과도해지면 공포와 두려움, 공황 등 문제를 일으킨다. 공포와 두려움은 과잉 행동을 하게 만들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며 잔인해지기도 한다.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불편한 감정인 불안을 느낄 때마다 짜증과 분노라는 감정을 덧칠한다면 통제감은 사라지고 상황은 악화하기 때문이다. 먼저 불안을 감정의 신호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로에서 빨간불을 마주한 운전자처럼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알아차림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불안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글을 편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불안이 과도해지면 자신의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불안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불안이 만드는 신체 반응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앞서 말했지만, 불안은 생존과 관련된 감정이다. 안전하기 위해 몸에서 먼저 본능적인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난다. 투쟁 도피 반응을 위해 몸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대근육에 집중시킨다. 힘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때 몸은 투쟁 도피 반응에 필요한 근육에 피를 보내고 싸움에 도움이 안 되는 소화기나 생식기에는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손이 땀으로 젖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불안을 조절하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를 먼저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호흡이다. 불안이 밀려들면 호흡은 빨라지고 마시는 산소가 급격히 줄어든다. 호흡을 깊이 해서 온몸에 산소를 보내도록 하고 깊이 들이쉬는 호흡을 반복해주면 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불안 DNA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지혜 필요

불안 대처 방법은 이 외에도 체계적 둔감법, 노출법, 홍수법 등 다양한 전문 심리 치료가 있지만 일반인이 가장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제 학습(사고)으로 인해 만들어진 불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인간의 불안은 미리 배우는 학습도 원인이 된다. 현대인들은 쥐나 뱀을 직접 만날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뱀과 쥐를 떠올리면 경고 반응이 몸에 나타난다. 뉴스를 통해 보고 듣는 살인과 강도 등 위험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수많은 교육과 매체로 인식된 혐오 반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쑥 튀어나와 불안을 야기한다.

학습으로 만들어진 불안과 혐오 반응에 대해 '감정사용설명서'의 저자 도리스 볼프는 "해묵은 평가를 찾아 그것이 현재도 적절한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새로운 평가에 맞는 행동을 반복 학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뱀을 괴롭히는 소년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이 제따와나에 계실 때 사왓티로 탁발하러 갈 때였다. 한 무리의 소년들이 뱀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이들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뱀을 때리고 있다고 답하자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부처님은 다시 질문했다.

"뱀이 우리를 물까 두려워서요."

아이들의 답이다. 아이들은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고 대비하기 위해 뱀을 괴롭혔다. 불안 사고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뱀은 독을 가진 동물이고 물 수 있다는 교육을 미리 받았을 것이다. 이런 교육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뱀이 위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뱀을 괴롭힌 것은 불안이 불러온 잔인함이었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불안이 되어 공격 반응을 일으키고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읽으시고 자비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법하셨다.

"행복을 구하려면 다른 생명을 때려선 안 된다.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남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 행복을 얻으리라."

불안은 상대를 적으로 보게 만든다. 평소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처방전이 되는 이유이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⑰ 발 반사요법과 신발

발마사지로 온몸 건강 돌본다

한국 사람치고 오른쪽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다. 발을 자극하여 내장 기관을 활성화하고 병을 고친다는 반사요법에 대한 설명 그림이다. 발 반사요법(Reflexology)은 때때로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한다.

에너지 또는 기를 차단·해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영역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이 영역 중 일부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발과 손의 반사 작용이다. 반사요법은 신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발이나 손의 부위를 마사지하고 누르는 일종의 신체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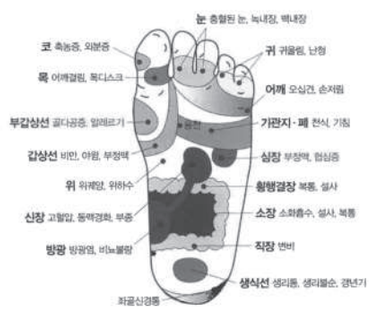
발 반사요법은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는 전래 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의학이 신경망의 구조를 밝히면서 반사요법의 과학적 근거도 밝혀지고 있다. 그림처럼 우리 몸의 신경은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바닥에는 신경망이 인체에서 가장 조밀하게 분포돼 있다. 그런 발바닥을 자극해 몸의 다른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깨가 결리는데 발바닥을 주물러주고, 오른쪽 손가락이 부드럽게 굽히거나 펴지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움직이는 트리거 증상이 있을 때 왼쪽 발가락 끝에 침을 놓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발 반사요법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되어 기원전 2330년에 고대 이집트의 앙크다호 무덤에는 발 반사요법과 손 반사요법을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인도의 석가모니의 발을 만들어 놓은 불족석 안에는 반사구 형태를 한 산스크리트 기호들이 새겨져 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의 '소녀편'에 관지법이 소개되어 있다. 관지법은 발에 있는 혈 자리를 자극하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치료방법으로 발 반사요법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민간요법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세종대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세종대왕의 나이 30세인 1426년(세종 8년) 5월에 당뇨병으로 인한 풍기와 소갈증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신장염, 방광염, 관절염, 안질 피부염, 천식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증상들에 대하여 평소 버선 속에 콩을 넣어 다니면서 발을 자극, 질병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미국의 내과의사인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는 1913년 학계에 존 테라피(Zone Therapy)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발 반사요법의 이론적 발전의 근거를 마련했다.

발 반사요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앞의 그림처럼 발과 각 신체 부위가 연결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엄지발가락은 머리, 둘째 발가락은 눈, 셋째 발가락은 코, 넷째와 새끼발가락은 귀와 연결돼 있고 발의 가운데 우묵한 부위는 복부, 발꿈치는 생식기, 발 안쪽은 척추, 발 바깥쪽은 어깨, 무릎과 연결돼 있다. 이는 발과 인체의 각 기관이 거울처럼 반사돼 있다는 원리이다.

우선 양쪽 발 전체를 20분 정도 마사지한 뒤 내가 아픈 부위와 연관된 발의 반사구를 3~5분간 지압하면 된다. 이렇게 반사 부위를 자극하면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몸의 순환 기능을 촉진, 면역강화를 통해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경혈로 몸의 건강을 진단하기도 한다. 발을 수많은 경락과 경혈이 모여 있는 신체의 축소판으로 보고 오장육부의 건강을 진단한다. 발이 푸른색을 띠면 당뇨병이 의심되고, 검은색을 띠면 신장, 노란색을 띠면 심장 이상을 의심한다.

신체 불균형은 질병이나 신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발에 딱딱한 피부, 굳은살, 부드러운 반점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신체의 해당 부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발이나 손, 신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사지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발 반사요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효과가 검증된 것에 비하여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발 반사요법은 아주 일부의 질병에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반사요법 발 마사지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신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치료 마사지는 또한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적 신발은 발의 신경을 무감각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면서 발로 신체의 각 장기를 자극하던 원시인과는 달리 현대인의 장기는 과식으로 피로해지고, 신발로 인해 무기력해진다.

그렇다고 바닥에 돌출물을 심어 인위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신발은 오히려 지나치게 강하고 빈번한 자극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늘 자연스럽게 몸이 나에게 주는 정도의 충격과 자극을 주는 신발, 바로 발가락의 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발볼 넓은 신발, 그리고 땅의 굴곡, 작은 자갈도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비바미 신발이 발 반사요법 신발로 좋다.

〈비바미(Viva!me) 대표〉





AI와 붓다 2.0
첫방송 9월 23일(월) 09:30
본 월 09:30 재 월 21:30 / 화 15:30



꽃보다 출가
첫방송 9월 24일(화) 09:30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한국의 세계유산, 그 숨결을 찾아
첫방송 9월 24일(화) 12:00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의 열반과 깨달음
첫방송 9월 25일(수) 07:30
본 수 07:30 재 수 20:30 / 차주 월 13:0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첫방송 9월 25일(수) 13:00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뜰 앞의 잣나무
첫방송 9월 26일(목) 12:00
본 목 12:00 재 목 22:30



법장스님의 투게더
첫방송 9월 27일(금) 07:30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첫방송 9월 27일(금) 12:00
본 금 12:00 재 금 23:15 / 일 13: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첫방송 10월 1일(화) 07:30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佛法 만나 감사” 장병 반응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불교의 인연은 모태신앙으로 맺어졌다. 그 인연으로 지금 스님이 되어 젊은 청년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창시절, 대전에 있는 불교종립학교인 보문중·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파라미타’라는 청소년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포교활동에 애착이 갔다. 대학교도 동국대에서 불교학 전공을 하면서 전법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맡아 활동을 하면서, 동련에서 진행하는 불교교사대학도 졸업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복수전공으로 종교(불교) 교원 자격까지 취득하는 등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었던 것 같다.

내가 군포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교법사 선생님의 소개였다. 그래서 대학교를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출가까지 하게 된 계기였다. 또 내면의 깊은 곳에 스며있었던 목마름이라고 할까?

대학생 시절, 불교 전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때에 젊은이들에게 젊은 불교, 접하기 쉬운 불교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불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접근하기 힘든, 어르신들만 믿는 그런 생각에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군종법사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필자의 군종전법일기를 4편에 걸쳐 들려드리고자 한다.

군승이라면 부대장병과 함께 어울려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함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용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위해 병영생활을 자처해 다녀왔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졸업 후 고창 선운사로 출가하여 어느덧 8년차 군종법사 소임을 맡고 있다. 어느 날 한 용사가 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법사님, 군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스스로 좌절하고 군에 입대한 자신에 대해 회의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한 동기와 함께 법당에 와서 법회에 참석하면서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갈등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법회를 참석할 때마다 불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용사의 피드백은 군전법활동을 하면서 내게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즘 MZ세대 불자 장병의 관점에서 발맞추어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종종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⑧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3)

좋은 이별은 성장을 가져온다

오늘은 ‘상실’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얻은 23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알아서 척척 기저귀를 가져오고, 콧물을 닦아줄라 치면 어느새 달려가 티슈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기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3시간 넘게 발악을 합니다. 요구르트를 더 달라고 허리를 거꾸로 활처럼 휘고 온몸을 꼬아대며 바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쉬지 않고 떼쓰며 울어대는 통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땀범벅이 됩니다. 더 서글프고 간절하게 보이려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고 아이를 달래며 먹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기는 결국 저와 타협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슬며시 손을 잡고 거실로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강렬한 본능만 가진 아기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노여워하고 또 슬퍼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에 압도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기의 감정을 안아주고 견뎌주며, 아기의 극렬한 공격성에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주기를 반복하면, 아기는 ‘사랑의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가 분노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된 사랑으로 돌아오는 마법을 통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합니다. 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게 잘 해결돼 곧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실을 잘 승화해 자기 확장 기회로
‘모든 것이 변한다’ 위력을 체험하면
사랑의 슬픔은 삶의 안목으로 전환

신데렐라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엄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랍니다. 동화는 대부분 계모가 등장하고, 주인공은 늘 셋째 딸, 셋째 아들로 언니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화는 왜 그렇게 늘 계모와 못된 언니, 형들만 있는 걸까요? 동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자기의 욕구에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던 양육자들이 서서히 사회의 규칙을 알려주고 욕구를 통제할 때 아기는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 나’의 삼자관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나는 셋째 딸, 셋째 아들로 대변되며,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엄마는 꼭 계모처럼 느껴집니다. 늘 즉각적인 만족을 주던 좋은 엄마는 죽어서 나무가 되었고,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피해 나무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좋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깃든 흰 새가 모래흙에 섞인 콩을 골라내는 것처럼 분별력으로 어려움을 풀어가고, 호박과 쥐와 헌 신발을 마차와 마부, 유리구두로 변하게 하는 마법처럼 아이들은 날것의 욕망을 세상에 수용할 만한 더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애도 이후에 얻게 된 성장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대상 상실의 경험에서 분노와 슬픔의 매몰이 아닌 더 넓은 자기의 확장으로 애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담아내고 견뎌내며 성숙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것 없이 변해갈 뿐이라는 위력을 체험합니다. 마법처럼 사랑의 슬픔을 삶의 안목으로 전환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사찰을 ‘청년 마음의 집’으로

얼마 전 자주 다니던 한 사찰청년회에 참석했다. 법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스님과 법우들이 마주 앉아 차담 시간을 가졌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잠시, 법우들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취직, 부모님·연인과의 갈등, 불투명한 미래 등 어느 하나 가벼운 주제는 없었다.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한 법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절에 와서 다 말하니 속은 시원하네요.” 누구도 속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지만, 함께 고민을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된 경험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은 홍대선원 2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던 날이다. 공양부터 행사 기획까지 곳곳에 청년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앞으로 홍대선원이 어떤 곳이 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주지 준한 스님은 “청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향한 청년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가수 이하이의 ‘한숨’ 중 일부다. 어떻게 보면 저 가사에는 불교가 현대사회 청년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가 담겼다. 바로 ‘자비(慈悲)’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든 청년의 깊이 모를 한숨에 말없이 다가가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사찰이라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불교 사찰은 청년들이 한숨을 편히 내쉴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돼야 한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예경·예참의 완성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자들은 조석의 일정한 때에 함께 모여 신앙을 위해 봉안한 삼존상 등에 예불을 올린다. 그런데 불격인 삼존을 모신 상단이 아닌 단에서 하는 예경도 모두 예불이라 부른다. 하나 전통의 '예불절차'를 보면 예불은 모두 붓다께 예를 올리는 절차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근대의 〈석문의범〉에는 예불 의례를 '예경'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예경은 공경히 예배하는 의례라는 뜻인데, 실제 불보살 앞에서 절할 때 아뢰는 대사는 '예경'이 아닌 '일심경례모불보살'이다. 유사한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경의나 공경을 표하며 예를 표하는 동작의 경례는 일반명사이나 예경은 붓다나 보살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하여 불교 용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예경은 조석예불이다. 오늘날 종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절에서는 아침 저녁 삼보를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달마야중, 문수·보현·관음·지장의 네 보살, 아라한, 제대조사, 승가야중'으로 나눠 예경한다. 칠정례라고도 하는데 7번 머리 숙여 절한다는 뜻이다.

정례 이전에 아침에는 다게, 저녁에는 향게를 아뢰고, 정례 이후에는 총원의 발원을 하며 마친다. 조석 예경은 불교도나 특종 종파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행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의 칠정례는 그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경 완성 실마리 '예불의식'
항상 마지막에는 참선 이어져
예경, 참선에 들기 위한 신행

혹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통불교라고 설명하나 명확한 진단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불보살을 모신 대웅전 등 전각에서 삼보께 두루 예경하는 칠정례는 바람직한 일상 의례라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삼보를 칭명하며 예경하는 것을 보면 칠정례 형식은 '예참'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인다. 예참은 신앙하는 소의경전에 등장하는 불보살을 초청하여 공양하고 예경하며 참회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칠정례 등 절만 올린다고 해서 예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경이나 예참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 '예불의식' 형식을 참고하면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처음에는 향을 올리는데, 이것은 이미 행해지고 있으니, 목적은 차치하더라도 형식은 갖춰졌다.

다음은 찬탄이다. '천상천하무여불~'하는 게송이 주로 쓰인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 이후 탄백으로 하기도 하나 정례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 찬탄 이후 죄업을 소멸하는 주를 염송하는데 이는 복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에 경례한다. 이어 업장을 참회하고, 다른 이의 선행을 따라서 기뻐하며(수희), 불도를 이루기를 권하고 붓다께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법을 전하기를 청하며, 지혜 얻기를 발원하며, 일체 선한 업을 회향하는 '오회(五悔)'를 하면 된다.

소의경전에 의한 예참은 대개 도량과 마음의 정화를 시작으로 경전 염송, 관행을 닦는 등 열 단계로 행해지며 마지막은 참선에 든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요가를 통해서 정신집중을 얻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개발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국 선학의 파악은 이래서 탁견이다. 왜인가. 예참·예경은 참선에 들기 위한 신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연결사회와 포교 커뮤니케이션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연결사회를 맞아 명상이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초래한 정보과부하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명상이 전세계적으로 단순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불교'가 대세인 듯 보인다. 연인과 손을 잡고 불교박람회를 찾아 굿즈를 사고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뽐내는 것을 MZ스럽다고 본다.

지난달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장의 뉴진 스님 공연에서 보여진 열기는 MZ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하였다. '힙한 불교'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공식 홍보대사로서의 몫을 제대로 성취해 냈다고 할까.

헤드셋을 끼고 큰스님의 영상법문을 들으며 명상과 단주 만들기를 체험하는 '바다마음' 부스의 입장권은 개장 1시간 만에 동이 났고, SNS로 소문을 듣고 달려온 MZ세대들의 긴 대기 행렬은 불교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만한 진풍경이었다.

칠월칠석날에 낙산사에서 열린 2030세대 미혼남녀를 겨냥한 인연찾기 '나는 절로' 이벤트는 7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SNS서 MZ세대 불교 관심 높아
초연결사회 명상 붐에 주목 필요
불자, 포교 커뮤니케어터 역할을

최근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이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접근법과 디지털 미디어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불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사찰들의 당연한 포교 전략이 되었고, 전통적인 사찰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의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포교가 보편화하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포교 커뮤니케이션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정보의 즉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관심과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넘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헤드스페이스(Headspace)와 캄(Calm) 같은 명상 앱은 명상과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현대인들의 수요를 확인하게 한다.

종교의 메시지를 대중이나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포교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추종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오늘의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는 포교의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제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사찰들의 포교 전략도 체계화되어야 할 때이다. 초연결사회에 포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 포교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社 說

국회 정각회, '화합 정치' 이끌길

제22대 국회정각회가 9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2대 국회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국회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이헌승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고 한다.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시심마' 즉 '이뭐꼬'라고 쓰여진 액자를 걸어 놓고 명상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힌 이 회장은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55명이 회원 등록해 역대급 규모로 구성된 제22대 정각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곽상원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6선인 주호영, 추미해 의원 등 스타급 의원도 다수 가입해 출범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민생을 선반 위에 놓고 매일 극한의 대치를 보이며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어를 통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며 선명상 수행을 당부한 것도 정쟁을 내려놓으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쟁(爭)'을 '화(和)'하려면 '보살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는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국회 정각회원들이 '보살의 마음'으로 '화합의 정치'를 이끌길 바란다.

파주 용미리 마애불, '관리 이관' 환영한다

국내 최대 규모 석불인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보전 관리 주체가 지역 조계종 사찰인 파주 용암사로 위탁됐다.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는 9월 5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단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에 대한 관리 주체가 기존 파주시에서 용암사로 이관됐다.

용암사는 파주 용미리 마애불이 원만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보물 지정 이전부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협약으로 용미리 마애불의 가치를 수호해온 용암사의 역할이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사찰 인접한 성보여도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경을 할 수 없었던 사찰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산마애여래삼존상,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은 모두 국유지에 자리해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파주 용암사와 파주시의 협약으로 파주 용미리 마애불은 여법하게 예경하며 보존할 수 있게 됐으며, 용암사는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순례기도회와 문화유산활용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유연한 불교계와 지자체의 협치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